

해방 20년(1945~1965) 한국 경제학계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의 경제학 교육

정진아*

요약

이 글에서는 해방 20년 한국 경제학계의 동향 속에서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의 경제학 교육을 살펴보았다. 해방후 연희전문학교 상과는 연희대학교 상경대학의 경제학과, 상학과 체제로 전환되었다. 연희대학교 상경대학에서는 고전학과, 역사학과, 신고전파, 케인즈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론적 탐색이 이루어졌고, 한국의 경제현실과 국제경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6.25전쟁이 체제전의 성격을 띠었으므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월북, 남북 또는 사상적 이유로 대학을 떠났고, 교수진의 공백이 심각했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은 모교 출신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교수진의 공백을 메꾸었고, 학생들은 상경연구회의 연구조사활동과 연구발표회를 통해 수업내용의 결손을 보완해나갔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은 1950년대 후반 상경대학 재편을 단행하면서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하였다. 경제학과의 방향을 종래의 이론 중심에서 기업경영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실천이론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전환하고, 기업경영 실무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상학과와 경영학과를 상경대학의 틀 속에서 함께 발전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후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은 워싱턴대학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의 경영학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의 커리큘럼, 토론식 교수법 등의 신사조를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실무적 기반을 쌓고자 경영학과와 한국의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을 실증적,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적 실천경제학'을 추구한 경제학과의 양대 학풍으로 정립되었다.

주제분류 : B030106

핵심 주제어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 교육, 상경연구회, 워싱턴대학 프로젝트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e-mail: jina@konkuk.ac.kr

I. 머리말

해방된 조선의 일차적인 과제는 자주적인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이었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구조를 청산하고, 자립적인 경제 운영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학술원, 민족문화연구소, 조선경제연구회, 조선사회과학연구소 등 조선경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술단체들이 속속 창설되었고,¹⁾ 경제 연구의 산실로서 대학을 재건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하였다.

그러나 미소 군정의 실시와 민족통일전선의 붕괴, 뒤이은 좌우 정치세력의 대립은 학술단체의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다. 일부 회원들이 정치 무대의 전면에서 나서면서 학술단체 또한 좌우대립의 격랑에 휘말린 것이다. 결국 이들 학술단체는 더 이상 안정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지속하지 못하고 활동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통해 신국가를 건설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요 활동무대는 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시기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반포하여 조선의 교육을 ‘忠良’한 제국 신민을 양성하기 위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전문교육으로 한정했다. 경성제국대학을 제외한 대학교육은 허용하지 않았다.²⁾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경성고등상업학교에 경제학 강의가 다수 개설되었으나, 두 학교의 경제학 교육은 식민지 경영의 충성스러운 조력자를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사립학교는 전문학교로 전략하여 실무 능력을 전수하는 ‘상과’만을 개설할 수 있을 뿐이었다.³⁾

그마저도 1944년 5월 연희전문학교가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보성전문학교가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개편되고, 학생들마저 학도병으로 혹은 노무인력으로 동원되면서 경제학 교육은 파행을 면치 못하였다. 경제이론 및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경제 실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신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해방된 국가의 동량을 양성할 수 있는

1) 崔虎鎮(1956), “經濟·商學”, 『大韓民國建國十年誌』, 大韓民國建國十年誌刊行會 ; 방기중(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참조.
2) 정재철(1985), 『일제의 대한국 식민지 교육 정책사』, 일지사 ; 윤종혁(2008), 『근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학제 변천 과정 비교 연구』, 한국학술정보 참조.
3) 李基俊(1988), 『教育韓國經濟學發達史』, 一潮閣, 142-172.

고등교육 기관의 창설이 시급했다.

그동안 한국 경제학계의 동향에 관한 연구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학술사’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시의 시대상황과 연결된 경제학계의 학문적, 실천적 문제의식과 지형도를 보여주고자 한 연구이다.⁴⁾ 둘째는 ‘사상사’ 연구방법론을 통해 경제학자 개인의 학문과 사상을 치밀하게 분석한 연구이다.⁵⁾ 셋째는 ‘학교사’의 서술방식을 토대로 하여 교수진의 학문적 경향성과 학교의 학풍을 개관한 연구이다.⁶⁾ 한국 근현대 학술사, 사상사를 체계화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진행된 위의 연구성과를 통해서 우리는 한말, 일제시기 경제학계의 동향과 판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일제시기를 다루었으므로 해방후 경제학계의 지형 변화라는 역동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해방후를 다룬 연구라고 하더라도 주로 교수진과 커리큘럼의 변화를 개관하였기 때문에 남북 분단과 미국의 영향력 속에서 재편되어간 경제학계의 변화가 갖는 체제적인 의미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실질적인 주역이었던 교수와 학생 주체들의 활동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방후 한국 경제학계의 동향 속에서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의 경제학 교육을 고찰하되, 남북 분단과 전쟁이 대학에 미친 영향을

- 4) 李基俊(1983), 『教育韓國經濟學發達史』, 一潮閣; 홍성찬(1994), “일제하 연전 상과의 경제학풍과 ‘경제연구회’ 사건”, 『연세경제연구』 창간호 ; 李秀日(1997), “1920~30年代 韓國의 經濟學風과 經濟研究의 動向-延專 商科 및 普專 商科를 중심으로”, 『연세경제연구』 제4권 제2호.
- 5) 李秀日(1992), “日帝強占 解放期 印貞植의 經濟思想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기중(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경제사상』, 역사비평사 ; 洪性讚(1993), “일제하 李順鐸의 농업론과 해방직후 立法議院의 토지개혁법안”, 『經濟理論과 韓國經濟』, 박영사 ; 방기중(1996), “일제하 이훈구의 농업론과 경제자립사상”,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 윤기중(1998), “백남운의 학문세계와 사상”, 『한국현대사연구』 창간호 ; 李秀日(2000), “1920年代 中後半 유석 조병옥의 민족운동과 현실인식”, 『實學思想研究』 제15·16합집 ; 吳鎭錫(2001), “일제하·미군정기 韓昇寅의 政治活動과 經濟認識”, 『연세경제연구』 제8권 제1호 ; 홍성찬(2011), “최호진의 경제사 연구와 저술의 사회사 : 1940~60년대”, 『동방학지』 제154집 ; 吳鎭錫(2014), “해방 전후 崔鎭鎭의 학문세계와 학술활동”, 『한국경제학보』 제21권 제2호.
- 6) 보성전문학교의 법학 경상학교육과 한국의 근대화 연구위원회 편(1986), 『近代西歐學問의 受容과 普專』, 고려대학교 ; 윤기중(1989), “경제·경영학의 학문적 진동”, 『계간연세 진리 자유』 가을호 ; 김균·이현창(2005), 『한국경제학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학은(2015),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백년사 I-한국의 근대경제학 1915~1956』,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살펴보고 대학 주체들의 문제의식과 활동을 통해 연세 경제학이 건설되어간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II장에서는 해방후 종합대학의 설립과 연희대학교 상경대학의 건설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경대학의 커리큘럼과 학제가 자리 잡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III장에서는 6·25전쟁으로 인한 인적 손실과 대학 재건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이 대학사회에 미친 영향과 더불어 전후 대학의 인적, 학문적 판도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IV장에서는 1950년대 후반 상경대학의 개편과 학문적 특성화 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현재 연세대학의 상경대학이 어떠한 문제의식과 제도적인 재편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학제와 내용을 갖추어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시기와 비교할 때 해방후의 대학은 학제, 커리큘럼과 교육내용, 교수진, 학사 운영 등에서 총체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내용을 변화시켜가고자 했던 정부와 대학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 원조를 통해 미국식 교육을 한국에 이식하고자 했던 미국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내에 남아 있던 일제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연구와 교육의 내실화를 이루고자 했던 교수 및 학생들의 요구가 결합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대학 주체들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해방후 경제학계의 동향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경제학계의 지형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II. 해방후 종합대학 설립과 상경대학의 건설

1. 해방후 상경대학 체제의 정립

일제의 '조선교육령'에 의해 경성제국대학을 제외한 각 사립학교들은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전문학교 체제로 정립되었다. 일제 말기에 이르면 그마저도 왜곡과 파행을 거듭했다. 특히 연희전문학교의 희생이 컸다. 일제시기 경제학 연구와 교육의 산실로서 반일·반관학의 학풍을 견지하면

서 “한국적 경제학을 추구”⁷⁾했던 연희전문학교 상과는 1938년 ‘경제연구회’ 사건과 동우회사건, 흥업구락부사건으로 백남운, 이순탁, 노동규, 정광현, 최순주, 홍승국 등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교수들과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야 했다.

1941년 12월 7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연희전문학교의 미국·영국계 교수와 미국 유학과 교수를 학교에서 쫓아냈다. 1942년 8월에는 연희전문학교의 재산을 적산으로 몰수하였으며, 일본어·일본사·일본경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급속한 일본화를 단행했다.⁸⁾ 1944년 5월에는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개편하면서 ‘공업경영과’만 남기고 상과를 비롯한 모든 학과를 폐지함으로써 경제학 교육은커녕 상학 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게다가 학도병 징집과 학생 노무동원으로 인해 수업조차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⁹⁾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연희전문학교와 보성전문학교의 관련자들은 일 본인 교장으로부터 학교를 접수하는 한편, 대학준비위원회를 꾸려 미군정에 종합대학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¹⁰⁾ 1946년 10월에는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잇달아 문교부의 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연희대학교¹¹⁾와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족하였고, 경성대학은 ‘국립서울대학교설치안’에 의해 국립서울대학교로 재발족하였다. 일제시기의 전문학교들이 속속 종합대학으로 재건되면서 각 대학은 종합대학의 면모에 걸맞게 단과대학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의 대학은 혼란 그 자체였다. 일제시기 중학교 이상은 모두

7) 申泰煥(1982), 『大學과 國家』, 亞細亞文化社, 119.

8) 李基俊(1988), 『教育韓國經濟學發達史』, 一潮閣, 144-145.

9) 1943년에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한 이기일은 1944년 1월 반강제로 학도병으로 출정하였다고 술회하였다. 1944년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에 입학한 송기철은 1943년 입학생은 거의 모두가 학도병으로 징집되었고, 1944년 입학생들도 1945년 봄부터 노무동원을 당해 부평의 인천조병창에서 소총 생산을 하다가 해방을 맞았다고 회고하였다(李氣乙(1999), 『島雲자서전』, 博英社, 190-197; 宋基撤(2004), 『日帝下挫折된 삶』, 保景文化社, 196, 210-212).

10) 연세대학교백년사편찬위원회(1985), 『연세대학교백년사 1-연세통사(상)』, 334-335; 고려대학교90년지편찬위원회 편(1995), 『高麗大學校九十年誌 : 1905~1995』, 高麗大學校, 261.

11) 연희전문학교는 1946년 4년제 종합대학 연희대학교로 미군정 문교부의 승인을 받았고, 1957년 세브란스의과대학과 연희대학의 합동과정을 거쳐 지금의 교명인 연세대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필자는 학교명의 변화에 따라 본문에서도 1946년부터 1957년까지는 연희대학교, 1958년부터는 연세대학교로 명명하고자 한다.

일본어로만 수업했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들 모두 한국어로 수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어 교재가 없어 일본인이 쓴 교재를 한글로 베껴서 쓰는 등 강의와 수업 내용도 부실했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교수진은 크게 부족했고, 학생들은 일제 말기의 수업 단절로 인해 전공에 대한 애착을 갖지 못하고 타 대학으로 혹은 인기 있는 학과로 학교와 전공의 대이동을 감행했다.¹²⁾ 해방후 대학은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재건되어야만 했다.

1945년 11월 6일 개강한 연희전문학교는 초기에는 문학부, 이학부, 신학부, 정경학부 체제로 개편되어, 정경학부 산하에 외교과, 정치과와 더불어 경제학과와 상학과가 배치되었다.¹³⁾ 경제학과와 상학과는 이후에도 몇 번의 기구 재편 과정을 거쳤다. 문학원의 정경학부로 배치되었다가 접수위원회와 미국인 선교사들의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쳐 1946년에는 상학원 산하로 재배치되었으며, 1950년 상학원이 다시 상경대학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상경대학 산하의 경제학과, 상학과로 정착하였다.¹⁴⁾

고려대학교에서는 경상대학 산하에 경제학과와 상학과가 설치되었다가 이후 경제학과는 정경대학으로, 상학과와 경영학과는 상과대학으로 분리되었다. 서울대학교에는 상과대학 산하에 경제학과와 상학과가 설치되었으나, 사회과학대학이 설립되면서 경제학과를 사회과학대학에 편입시켰다.¹⁵⁾ 다소의 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연희대학교는 1946년부터 상학원 아래 경제학과와 상학과가 설치되고, 1950년 초기에 상경대학 체제로 정립되었다.

12) 宋基撤(2004), 『高麗大學校와 나』, 保景文化社, 4-6, 10-11. 서울대학교로의 대이동은 서울대학교 측이 관련 전문학교들을 통합하면서 부족한 정원을 보충하기 위해 타 학교로부터 우수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취하면서 발생하였다. 서울대학교는 타 대학의 전문부 2학년 졸업자에게는 1학년, 전문부 3학년 졸업자에게는 2학년, 타 대학 2학년 및 전문학교 4학년 수료자에게는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1986), 『서울대학교40년사』, 서울대학교, 30]. 당시 고려대학교에 재학했던 송기철은 과 동료들 다수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로 빠져나갔고, 서울대학교 사범대와 수의대로 가기도 했으며, 일제 때부터 계속 고려대학교에 잔류한 '純種'학생들 중에서도 법률학과, 정치학과, 국문학과, 영문학과로 과를 옮긴 동료들이 있었다고 회고하였다[宋基撤(2004), 같은 책, 5-6, 10-11].

13) 연세대학교백년사편찬위원회(1985), 『연세대학교백년사 1-연세통사(상)』, 339.

14) "연희대학교 학칙"(1946)(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 연세창립80주년기념사업회(1969), 『연세대학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484.

15) 김균·이덕재(2005), "고려대학교 시절의 경제학술활동", 『한국 경제학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출판부, 124-126 ; 서울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 편(1996), 『서울대학교 50년사 : 1946~1996』, 서울대학교.

학교별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을 다루는 경제학과 실물경제를 다루는 상학과 경영학을 사회과학과 경영학의 영역으로 분리·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상경대학에서 함께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발전 전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연희대학교는 일제시기부터 경제학 연구와 경제 실무교육의 전통이 강했던 연전 상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상경대학에 경제학과와 상학과를 함께 배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상경대학 체제의 정립은 이후 연세대학교의 경제학 교육이 이론과 정책, 실물경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체계적으로 발전해가는 바탕이 되었다.

학과가 정비됨에 따라 연희대학교는 학생 선발을 서둘렀다. 예과 최초의 입학시험은 1946년 7월 3일에 시행되었다. 시험과목은 국어, 국사, 영어, 경제원론, 서양사였고, 합격 예정자 157명 중 정경학부 학생이 입학생의 53.5%인 84명이었다. 이는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뜨거운 관심과 현실참여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¹⁶⁾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재연되었다.¹⁷⁾

종합대학 체제로 정비하고 신입생을 선발하였지만, 전문부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었다. 일제시기 전문학교 상과는 3년제였다.¹⁸⁾ 종합대학의 4년제로 통폐합을 하고자 했지만, 가정형편 등의 문제로 인해 전문부를 선호하는 학생이 많아서 일방적으로 전문부를 폐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과도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연희대학교는 먼저 전문부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을 보장하되, 전문부의 신입생은 뽑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전문부가 조만간 폐지될 것임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예과를 설치하고, 전문학교 졸업예정자 중 종합대학으로 진급을 희망하는 학생을 예과 2학년에 수용하여 본과 진입을 유도했다.¹⁹⁾ 예과 2학년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편입시험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아예 1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생도 있었고, 학병에 징병되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학병 경력을 인정하여 3학년 진급을 허가해주기도 하였

16) 연세창립80주년기념사업회(1969), 『연세대학교사』, 연세대학교출판부, 475.

17) 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1986), 『서울대학교40년사: 1946-1986』, 34.

18) 『延禧專門學校一覽(昭和十五年度)』(1940), 18-22 참조.

19) 고려대학교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제1전문부로, 종합대학 학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제2전문부로 편제하고, 제2전문부 2년을 수료한 학생에게 학부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宋基澈(2004), 『高麗大學校와 나』, 保景文化社, 2)].

다.²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희대학교에서는 1949년 졸업생을 끝으로 전문부가 폐지되었고, 1950년 5월 10일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었다.²¹⁾

2. 교수진 확충과 조선경제 교육을 위한 교과목 설치

해방후 연희대학교에서는 이순탁이 복귀하여 상학원 건설과 경제학과, 상학과의 교수진 구성을 진두지휘하였다.²²⁾ 이순탁은 연전 상과의 경제학풍을 만든 인물로, 일찍이 연전 상과 과장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학문적 경향을 가진 인물들을 등용함으로써 학문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가 주도한 연전 상과의 학풍은 반일, 반관학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학문관이 공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²³⁾ 1938년 발생한 경제연구회 사건으로 교수직을 떠나야 했지만 연전 상과에 미친 그의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학교 측의 신임도 두터워 교수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세브란스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였다. 이러한 그가 해방후 복직하여 상과 재건에 앞장서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²⁴⁾

연희대학교 교수진은 일제말기에 사직하였다가 복직한 이순탁·장희창·박효삼·신태환·육지수·윤만중·최순주·김성현·고승제와 이순탁에 의해 새로이 합류한 최인갑·최문환·조기준·송종국·박준채로 구성되었다.²⁵⁾ 일제 말에 반일·반관학의 학풍을 완전히 거세당하고 상과마저 폐지

20) 李氣乙(1999), 『島雲자서전』, 博英社, 245.

21) 연세대학교백년사편찬위원회(1985), 『연세대학교백년사 1-연세통사(상)』, 348-356.

22) 趙璣濬(1976), “經濟學”, 『韓國現代文化史大系 II-學術·思想·宗教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295.

23) 1920~30년대 연전의 학풍과 경제연구의 동향에 대해서는 李秀日(1997), “1920~30年代 韓國의 經濟學風과 經濟研究의 動向-延專 商科 및 普專 商科를 중심으로”, 『연세경제연구』 제4권 제2호를 참조할 것.

24) 이순탁은 경제연구회 사건으로 인해 1938년 강제 사직 당하였다. 경제연구회 사건에 대해서는 홍성찬(1994), “일제하 연전 상과의 경제학풍과 ‘경제연구회’ 사건”, 『연세경제연구』 창간호, 이순탁의 활동과 생애에 대해서는 洪性讚(1997), 『曉亭 李順鐸의 生涯와 思想』, 『연세경제연구』 제IV권 제2호를 참조할 것.

25) 李基俊(1988), 『教育韓國經濟學發達史』, 一潮閣, 256-258 ; 김학은(2015),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백년사 I-한국의 근대경제학 1915~1956』,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84. 해방후 연희대학교(1957년 이후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교수진의 이력에 관해서는 성태윤(2015), “1950년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학풍”, 『해방후

당하는 수난을 당했던 연희대학교는 해방후 일제 말기의 교수진을 복귀시키고, 일본 사립대학 출신들을 영입하면서 자유로운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²⁶⁾

〈표 1〉 1946년 2월 20일 현재 상학과, 경제학과 교수 명단(The faculty list of the Department of Commercial Science and the Department of Economics currently as of February 20, 1946)

구분	이름	담당과목	구분	이름	담당과목
전임	이순탁	경제학	전임	고승제	상업학
전임	장희창	상업학	전임	육지수	경제지리
전임	박효삼	상업학	전임	김성현	상업학
전임	신태환	경제학, 상업학	전임	송종극	상업학
전임	최인갑	상업학, 경제학	겸임	최순주	상업학
전임	최문환	법학, 경제학	겸임	박준채	상업학
전임	조기준	경제학, 노어			

자료: 연세대학교백년사편찬위원회(1985), 『연세대학교백년사 1-연세통사(상)』, 341. 교원 조직표에서 재정리.

Source: Compilation Committee for 100 Years' History of Yonsei University (1985), 100 Years' History of Yonsei University 1 Yonsei History (I), 341. Reorganized from the faculty organization chart.

연희대학교 상학원은 교수진을 정비하는 한편, 1946년 하반기에는 교과목 개발에 들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학과의 신설에 따른 교과목 설치였다. 일제 말기의 커리큘럼과 달리²⁷⁾ 경제학 이론과 농업, 상업, 공업 등 분야별 정책론뿐 아니라 조선사회사와 조선경제사, 조선경제론 등 조선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과목들과 세계경제사정이 개설된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해방후 조선경제 연구와 교육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과 의욕을 반영한 것이었다.

연세학풍의 전개와 신학문 개척』, 해안, 3장에 소개되어 있다.

26) 최인갑은 일본대, 최문환과 박준채는 와세다대, 조기준은 상지대, 송종극은 릿쿄대 출신이었다.

27) 1941년 연건 상과의 수업과목은 일본학, 국사, 성서, 국어, 영어, 지나어, 상업통론, 경영경제학, 상업사, 상업지리, 상품학, 은행 및 금융, 화폐 및 외국위체론, 보험론, 상업부기, 은행부기, 회계학, 상업실천, 상업수학, 商用文, 주산, 경제원론, 재정학, 상업정책, 통계학, 법률학(상법, 민법)이었고, 선택과목은 독일어, 영어경제서강독, 시장론, 교통론, 회계감사, 원가계산, 협동조합론, 신탁론, 취인소론, 참고론, 경제학사, 경제사, 동아경제사, 농업정책, 상업정책, 경기변동론, 일본산업론, 법률학(헌법, 조선행정법, 商事관계법령)이었다[『延禧專門學校一覽(昭和十六年度)』(1941), 18-22].

경제학과 상학으로 학과는 분리되었지만,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교수진의 전공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고, 상업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경제학도 가르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제시기와 달리 해방후에는 경제학과 상학을 전공한 조선의 인재들이 대거 교수진으로 확충되어 조선사회사, 조선경제사, 조선경제론, 세계경제사정 등의 교과목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 시작했다. 비로소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던 조선의 경제현실과 국제경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강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표 2〉 1946년 연희대학교 상학과와 경제학과의 교과목 편성(The curriculums of the Department of Commercial Science and the Department of Economics of Yonhee University in 1946)

상학과			경제학과		
호수	교과목명	학점	호수	교과목명	학점
201	상업개론	6	101	경제원론	6
202	상업수학	3	201	경영경제	6
203	부기	6	202	경제지리	6
204	상법	6	203	사회학개론	6
205	무역론	6	301	경제정책총론	3
301	상업사	6	302	금융론	6
302	회계학	6	303	국제경제론	6
303	철도론	3	304	통계학	6
304	상업정책	6	305	경제사	6
305	시장론	6	306	사회보험	3
306	보험론	6	307	농업정책	6
307	화폐론	6	401	조선경제론	6
308	원가계산	3	402	세계경제사정	3
401	상품학	6	403	재정학	6
402	회계감사	6	404	조선경제사	6
403	경기론	6	405	경제학사	6
404	무역실천	3	406	조선사회사	6
405	해운론	3	407	공업정책	6
			501	사회학 특수강의	6

자료: “연세대학교 학칙”(1946.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30-33.

주: 100호대는 1학년, 200호대는 2학년, 300호대는 3학년, 400호대는 4학년 과목이고, 500호대는 특수강의이다.

Source: “Yonsei University Regulations” (August 1946), Yonsei University Museum, 30-33.

Note: Regulations No. 100~199 are for freshmen’s courses, 200~299 for sophomores’, 300~399 for juniors’, 400~499 for seniors’, and 500~599 are for special courses.

그러나 위와 같은 교육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교수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설치안’이 발표되고 이를 반대하여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진이 총사퇴함에 따라 육지수와 고승제, 최문환, 조기준이 연이어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최인갑도 사직하였고, 신태환은 학교 측과의 갈등으로 동국대학교로 이직하였다.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상학원의 인사와 교무, 행정 전반을 진두지휘했던 이순탁이 초대 기획처장으로, 연전 출신으로서 일제 말기부터 학교를 지켜왔던 장희창이 초대 재무부 차관으로, 상업실무를 가르쳤던 최순주가 1949년 조선은행 총재로 부임하면서 교수진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또한 1948년 남에는 대한민국이,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남북의 사상지형도 극히 협소해졌다. 해방후 경제학자들은 고전파, 역사학과, 오스트리아학과, 신고전파, 맑스주의학파의 경제학을 폭넓게 연구하고 강의하였다. 그러나 1948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사상통제정책을 한층 강화하였다. 반공이라는 國是를 엄수할 것을 강요하였고, 일체의 좌익적 언행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1949년 4월에는 학도호국단을 결성하여 사상적 획일화를 기도했다.²⁸⁾ 남에서는 맑스주의 경제학을, 북에서는 자유주의 경제학을 자유롭게 논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학문의 분단이었다.

Ⅲ. 6·25전쟁으로 인한 인적 손실과 대학 재건

1. 전쟁으로 인한 인적 손실과 모교 출신 교수진의 총원

6·25전쟁은 한국 경제학계에 상상할 수 없이 큰 인적 손실을 가져왔다. 교수진 중 일부가 사망, 월북, 혹은 납북되었고, 2년에 걸친 피난 시절 동안 다수의 학자들이 생활고를 이유로 군, 기업, 실업계로 전직하였다. 일부

28) 홍성찬(2011), “최호진의 경제사 연구와 저술의 사회사: 1940~60년대”, 『東方學志』 제154집, 317-321 ; 서울大學校二十年史編纂委員會(1966), 『서울大學校二十年史』, 서울대학교, 67.

교수들은 사상적인 이유로 인해 강제로 학교를 떠나야만 했다.²⁹⁾ 문교부는 서울 점령 90일 동안 서울에 잔류하였던 교수들을 대상으로 부역 혐의를 심사하도록 지시했고, 이로 인해 연희대학교에서는 교수진의 33%에 달하는 28명의 교수가 학교를 그만두었다.³⁰⁾ 자유주의적인 학풍으로 인해 해방 후 연희대학교에는 다양한 학문적 경향성을 가진 학자들이 활동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한 사상정화 작업으로 인해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이렇듯 전쟁은 멸종에 가까운 감소, 고율의 인원 손실을 안긴 비극이자,³¹⁾ 분단과 냉전을 단기간에 체제내화하게 된 계기였다.

전쟁 후 피난지인 부산에서 다시 학교를 열었지만, 전쟁 전부터 교수진 공백의 문제를 안고 있던 연희대학교 상경대학은 9·28수복 후 교수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박효삼, 김두희, 윤만중, 서정갑이 모두 사직하면서³²⁾ 심각한 교수 기근에 빠졌다. 우선 문과대학의 조의설이 임시로 상경대학장을 맡고, 총장 서리를 맡고 있던 김윤경이 최호진 등 학계의 중진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다수의 강사들로 교수진을 꾸렸다.³³⁾ 중앙대학교의 최호진과 서울대학교의 김준보, 산업은행 조사부의 황병준·안림, 재무부의 이한빈, 전매청의 장하정, 금융조합연합회의 박동규, 미군정 상무부장을 지낸 한승인 등이 강사진으로 합류했다.

그러나 겸직교수 혹은 별도의 직업을 가진 강사진들로는 수업의 내실을 기할 수가 없었다. 전쟁기에는 이미 교수들의 다른 대학 겸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3~4개 대학의 교수를 겸직하는 경우가 비

29) 김윤경은 9.28수복 후 학교에 다시 모인 교수가 전쟁 전 86명(교수 17, 부교수 20, 조교수 14, 전임강사 4, 시간강사 31)의 40%인 35명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金允經, “6.25事變과 우리 延喜大學校”, 『延喜春秋』 제1권 제4·5호, 1953년 10월 1일자].

30) 문교부의 지시로 각 대학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잔류파 교수와 학생들의 부역 혐의를 심사하였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1986), 『서울대학교40년사』, 서울대학교, 52-54가 자세하다.

31) 安東赫(1984), “學術院과 나-30년 회고”, 『學術院30年史』; 安東赫(1986), “學術院波動에 즈음하여”, 『繼像 : 安東赫先生八旬紀念文集』(김용섭(2005), 『남북학술원과 과학원의 발달』, 지식산업사, 68에서 재인용].

32) 김두희와 서정갑은 서울대학교로 전직하였고, 박효삼과 윤만중의 사직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33) 최호진(2000), “일제말 전시하에서의 학문편력과 해방 후 경제학과 창설”, 『학문의 길 인생의 길』, 역사비평사, 80쪽. 당시의 교강사 명단은 <부록 1> 참조. 1952년에는 김상겸과 김척도가 교수로, 김준보와 김규삼이 전임강사로 부임하였고, 1953년에는 김준보와 이정환이 교수로, 오일홍이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았다.

일비재했고, 잦은 휴강과 준비 부족 등 수업 질의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952년 5월 26일 개최된 전국총학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전국 총학장들은 교수의 생활난과 인적 자원의 부족이라는 상황을 고려해서 2개 대학까지는 대학교수의 전임 겸직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³⁴⁾

연희대학교는 연희전문학교 상과 출신을 교수진으로 확보하는 한편, 모교의 대학원 졸업생을 전격적으로 임용함으로써 교수진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이미 연희대학교는 교수들의 잦은 이직으로 교수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는 동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서 교수진으로 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50년 6월 대학원을 개설한 바 있었다.³⁵⁾

이러한 방침에 따라 연희전문학교 1939년도 졸업생 김상겸, 김규삼, 송태영과³⁶⁾ 대학원 1회, 2회 졸업생인 오윤복, 이기을, 정종진, 임익순, 이종하가 모교에 자리를 잡았다.³⁷⁾ 이들 중 대다수는 이후에도 계속 모교에 남아 연구 활동과 후진 양성에 매진하였다. 연희대학교가 교수 충원 과정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안정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연희대학교는 1953년부터 상학사로 통일되었던 학위를 상학사와 경제학사로 구분하여 수여하고,³⁸⁾ 1954년부터는 교과목의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개편의 방향은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철저히 하고 영어교육을 강화하되,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 3학년부터 상학과·경제학과의 전공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 2학년 때는 전공에 관계없이 기초교양을 충실이 이수하도록 하였고 3, 4학년에는 전공과목이 집중 배치되었다.

34) “大學 教育의 質의 向上 圖謀, 全國總學長會議에서 決定”, 『延喜타임스』 속간 제1호, 1952년 7월 9일자.

35) 백낙준(1995), “회고록”, 『백낙준전집 9-회고록·종강록』, 연세대학교출판부, 115.

36) 이들은 일제에 의해 파행을 겪기 전 연전 상과에서 이순탁·백남운·노동규·최순주·임병혁 등에게 제대로 된 경제학 교육을 받은 마지막 세대이다.

37) 1954년 3월 20일 졸업한 1회 졸업생 12명 중 11명이 연희대학교에 교수진으로 남았다. 연희대학교 출신으로 대학을 재건한다는 학교 측의 구상이 실현된 셈이다.

38) “학사보고서 4285년도”(4286.4.18), 연희대학교 교무처(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52.

〈표 3〉 1956년 1학기 상학과, 경제학과 강의 과목 일람표(The course catalog of the Department of Commercial Science and the Department of Economics for the 1st semester in 1956)

	과목종별	과목명	학점	계열	교수명
1 학 년	필수교양	국어	3	공통	박태홍, 유창돈
	"	영어강독	3	"	이군철, 배동호
	"	현대영어	3	"	Mr. Elrod
	"	종교	3	"	이상호
	"	사회과학	3	"	한태수
2, 3, 4 학 년	필수전공	경제원론	3	"	이정환
	필수교양	현대영어	3	공통	홍승국
	필수전공	통계학	3	공통2,3	김준보
	"	경제사	3	공통	오일홍
	"	경영경제	3	공통	이기을
	"	회계학	3	공통	조익순
	"	재정학총론	3	공통	임익순
	"	한국경제사	3	공통	최호진
	"	산업통론	3	상2	김상겸
	"	부기학	3	상2	김규삼
	"	금융론	3	상3	오일홍
	"	원가계산	3	상4	이기을
	"	무역론	3	상4	김신찬
	"	경제학사	3	경4	김척도
	"	동태경제	3	경4	임익순
	선택전공	기업형태론	3	공통	정종진
	"	상업수학	3	상2	조익순
	"	공업부기	3	상3	김규삼
	"	교통론	3	상4	김규삼
	"	동양경제사	3	경3	정종진
	"	근대경제학	3	경3	김척도
	"	협동조합론	3	경4	박동규
	"	경제사상사	3	경4	정종진
"	사회정책	3	경4	김척도	

자료: "학사보고서 4288년도"(4289.4.24), 연희대학교 교무처(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21-24.

Source: "Academic Report of Year 4288" (April 24, 4289), Yonhee University Office of Academic Affairs (Yonsei University Museum), 21-24.

1956년부터는 공통 과목과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을 나누어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과목을 3학점으로 정비하였다. 1955년도 2학기에는 61과목까지 급증하였던 교과목 수를 33과목으로 대폭 줄였다. 전쟁 때 교수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설되었던 특

수강의와 시간강사 제도를 줄이고, 기초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알차게 편성함으로써 전임교수의 책임성과 집중성을 높여 수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³⁹⁾

2. 상경연우회의 활동을 통한 교육 보전

전쟁기인 1952년 12월 6일에 이관희, 이영수, 최한형, 전석두, 안상국, 황영석 등 상경대학 학생들은 경제학 및 상학에 관한 이론과 일반현상을 연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인격도야와 친목을 도모하며, 외국 경제학도와 학술교류를 하기 위해 商經硏友會를 창립하였다.⁴⁰⁾ 상경연우회는 창립목적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1926년 창립하여 “경제이론과 실제 문제의 토의, 실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12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했던 經濟硏究會의 전통을 계승한 학생들의 연구단체였다. 이후 상경연우회의 활동은 연구와 조사보고, 강연회, 잡지 발간 등에 집중되었다.

상경연우회는 학생생계동태조사와 방학 중 농촌실태조사, 기업체에 대한 경영분석 등을 진행하는 한편, 1953년 11월부터는 연구부 산하에 C, I, P, T의 4개 연구반을 두어 상학과 회계학, 경영학, 이론경제학과 경제사, 경제정책 연구를 진행하였다.⁴¹⁾ C반은 상학연구 및 실무연습을, I반은 외국 문헌의 연구 및 번역을, P반은 경제정책 연구 및 통계조사를, T반은 경제이론 연구 및 토론을 각각 담당하였다.

각 연구반의 연구활동과 발표, 외국 문헌에 대한 번역작업은 『經濟學叢』의 연구논문과 번역, 서평 등으로 외화되었다.⁴²⁾ 특히 번역과 서평은 서구의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⁴³⁾

39) “學制 改編에 關하여-申敎務處長 談話發表”, 『연희춘추』 제1권 제9호, 1953.12.1 참조.

40) “彙報”, 『經濟學叢』 창간호, 1953.6.1, 46.

41) 『經濟學叢』 각 호의 “彙報” 참조. 휘보는 1959년 제8권 제1호를 끝으로 더 이상 게재되지 않아 그 이후 상경연우회의 구체적인 활동상을 파악할 수는 없다.

42) 상경연우회는 1953년 6월 『經濟學叢』 창간호를 발행하여 1965년 제16호까지 발행하였으며, 1960년부터 1964년까지는 사상, 학술, 문예 등 종합지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硏友』 제1호~제4호를 발행하였다. 1962년 상경연우회와 상경대학 학생회가 통합한 후 1966년부터 지금까지는 상경대학 교지인 『商經論叢』이 발행되고 있다.

43)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송자는 유학 가서 언어가 서툴렀을 때 『經濟學叢』의 서평이 수업을 따라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술회하였다(송자(1997), 『한 가지라도

학생들이 서구의 최신 이론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켜가는 데 기여하였다. 각 연구반은 1956년 이후 연구부가 경제학·상학·경영학·산업경제학 연구부로 분화되는 조직적 토대가 되었다.

〈표 4〉 상경연우회 주최 특별강연회(Special lecture hosted by Yonsei Club of Commerce and Economics)

일시	연제	연사	직위
1952.12.10	현하 한국의 금융사정에 관하여	具鎔書	전 한국은행 총재
1953. 2.28	改貨 조치 후에 오는 문제	崔虎鎭	동국대 교수
1953. 6. 5	케인즈 경제이론의 소묘*44)	李廷煥	연세대 교수
1953.11.27	중앙은행 제도	宋仁相	한국은행 부총재
1954. 5. 1	경제재건과 산업은행의 기능	具鎔書	산업은행 총재
1954.10.19	농촌재건과 곡가문제	朱碩均	대한수리조합연합회장
1954.11. 1	구미순방의 소감	趙義高	전 상경대학장
1954.11.22	경제학의 연구방향과 미국경제학의 동태	申泰煥	한국경제학회 회장
1955. 5.12	농민의 활로	裴敏洙	금융조합연합회 회장
1955. 6. 6	고전파경제학과 Smith*	鄭鍾鎭	전임강사
	Keynes의 생애와 그 학설*	吳潤福	전임강사
1955.11. 7	현대자본주의사회와 증권시장	金孝錄	고려대 상과대학장
1956. 6. 5	고전파경제학과 Keynes 경제학*	趙東弼	고려대 교수
1956. 6.26	서독경영학 동태	尹炳旭	고려대 교수
1956.10.23	IMF회의 참석 귀환보고 강연회	申秉鉉	한국은행 조사부장
1956.11.22	제2회 국제경제학자총회 참석귀환보고	陸芝修	서울대 교수
1957. 4.11	국제부흥개발은행과 한국경제	宋仁相	한국은행부총재
1957. 5. 4	농업과 경제발전에 대하여	F. M. Ojala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농업부장
1957. 5. 8	서독경제의 현상과 그 전망	李冕錫	한국은행
1957. 6.12	한국경제와 케인즈경제*	成昌煥	고려대 교수
1957. 7. 1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전망	趙東弼	고려대 교수
1957.10. 4	사회주의논쟁	朴喜範	서울대 교수
1957.10. 8	구미 각국의 경제사학계 동향	趙璣澆	고려대 교수
1958. 5. 3	현대경제학	申泰煥	서울대 법과대학장
1958. 6. 5	한국 농업의 특성	趙東弼	고려대교수
1958. 6.27	경제정책과 계획경제	柳鎭舜	서울대 교수
1958.11.12	Marketing	Gilliland	워싱턴대학 파견 교수
1959. 4.30	Adam Smith 경제이론의 현대적 의의	崔文煥	서울대 교수
1959. 6.20	한국경제자립의 제 문제점	黃炳俊	산업개발위원회 위원
1959. 7. 4	경제계획과 실제	安 霖	산업개발위원회 위원
1959.10. 7	한국경제발전의 제 문제	Dr. Andrew	USOM중앙지구경제조정관

자료: 『經濟學叢』 각 호, “취보”에서 재정리.

Source: Issues of The Economic Review, Reorganized from “Bulletin”.

똑 부러지면 되는 거요: 송자 前연세대총장의 툇 터놓고 하는 이야기』, 중앙일보사].
44) 연세대학교에서는 1953, 1955~1957년 6월 케인즈기념제를 개최하고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연구 및 학술 활동이 본 궤도에 오른 1955년 10월 22일, 상경연우회는 “경제안정과 산업부흥”을 주제로 전국 경제학도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학교 측에 건의하였다. 연구·학술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천 활동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시기 상조를 이유로 학생들의 건의를 폐기하였다. 일제시기 ‘경제연구회’ 사건⁴⁵⁾으로 인해 교수진과 학생들의 대거 구속과 구속 학생의 사망이라는 일대 파란을 겪은 바 있는 연희대학교 측으로서는 학생들의 실천 활동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토론회가 무산된 이후에도 상경연우회의 특별강연회와 연구반의 연구발표회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주제는 통화개혁, 농촌재건, 경제자립과 같은 현안에서부터 고전과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 구미 경제학과 경영학의 동태, 증권시장과 은행의 기능 등 학생들의 경제 현실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학술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기획되었다. 상경연우회의 활동은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와 학술활동을 매개로 결합하면서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생긴 연구와 수업의 차질을 내용적으로 보완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IV. 1950년대 후반 상경대학의 재편과 학문적 특성화

1. 상경대학 개편안과 ‘워싱턴대학프로젝트’

1955년 7월 상경대학 교수진은 현 교육제도와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학과와 연구소 설치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편안을 준비하였다. ‘산업행정학과’와 ‘기업경영학과’의 신설 구상이 그것이었다.⁴⁶⁾ 산업행정과는 “경제학과 법률행정을 병행 교수함으로써 사회경제 현상을 파악 분석하여 경제이론을 국가행정면에 완전히 반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교과목에 경제이론, 상학, 법률행정을 각 1/3씩 배정하였고, 기업경영학과는 “경제이

45) 각주 17)의 논문 참조.

46) “增科 및 研究所 設置에 關한 商經大學 教授會議錄”(1955.7.2), 『연희대학교 상경대학 교수회 관련철』(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론과 경영실무를 교수함으로써 국가산업경제와 기업경영에 있어서 경영경제의 학리를 경영실무능력으로서 완전히 실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경영경제학과 상학을 각각 40%씩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법학과 행정학 등을 배정하였다.

1954년 전후재건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관계와 재계, 학계 모두 전후재건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과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었다.⁴⁷⁾ 이에 상경대학 교수진은 상학과와 경제학과의 학문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행정학과’와 ‘기업경영학과’를 신설하여 병행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표 5〉 ‘산업행정학과’와 ‘기업경영학과’ 교과목 편성 구상(Curriculum organization plans of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Administration and the Department of Corporate Management)

	전공 필수	경제원론, 통계학, 재정학, 사회정책 공업정책 농업정책 중 택일, 경제정책, 회계학, 회폐금융론, 원가계산
산업행정학과	전공 선택	경제수학(3) 국민소득론, 근대경제학, 계획경제, 추계학, 미국경제, 한국경제론, 협동조합론, 국제경제론, 케인즈경제학, 경제부흥론, 수산경제학(3), 경제통계학, 경제지리, 기업론, 시장론, 교통론, 보험론, 창고론, 회계감사, 국제금융론, 상업정책, 부기원리,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경제학연습(4), 영어경제학, 법학통론(3), 정치학, 국제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세법
	전공 필수	경제원론, 경제사, 경제정책, 재정학, 경영학총론, 화폐금융론, 회계학, 원가계산, 영어경영학, 재무관리, 부기원리
기업경영학과	전공 선택	사회정책, 경영분석(3), 회계감사(3), 세무회계(3), 시장론, 보험론(3), 경제지리, 헌법, 정치학(3), 노동법(3), 노무관리(3), 경영학연습(4), 기업론, 은행부기, 공업부기, 계산연습, 상업수학(3), 경영감사(3), 경영내부감사(3), 무역실천(3), 상품학, 기업집중론(3), 기업구조론(3), 경영계산(3)

자료: “증과 및 연구소 설치에 관한 상경대학 교수회의록”(1955.7.2), 『연희대학교 상경대학 교수회 관련철』(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주: 괄호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특정하지 않은 과목은 모두 이수학점이 6학점이다.

Source: “The Faculty Meeting Minutes of th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on the Expansion of Departments and the Installation of Research Institute”(July 2, 1955), Files related to faculty meetings of th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of Yonhee University(Yonsei University Museum).

Note: The number in the parentheses means the number of credits. The courses without the number are 6 credit courses.

47) 정진아(2007), “6·25전쟁 후 이승만 정권의 경제재건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2집 ; 洪起玄(1998), “한국의 경제학 50년”, 『考試界』 제43권 제10호, 93-94.

특히 산업행정학과에서는 한국경제론, 케인즈 경제학, 경제부흥론 등 최신의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와 정책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경영학과에서는 경제학과 상학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경영 실무 관련 교과를 강화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자 하였다. 상경대학 산하에 산업연구소도 발족하여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상경대학 교수들의 교육과정 개편안은 교육부장관 백낙준이 미국 정부 및 워싱턴대학 측과 교섭하여 ‘워싱턴대학프로젝트’를 전격적으로 성사시킴으로써 워싱턴대학프로젝트와 직결되었다. 일제시기 상업 실무교육에 치중했던 공립학교와 달리 기독교 학교인 연전 상과는 미국 유학과 출신 교수들에 의해 상학교육에 미국 경영학의 형식과 내용을 접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⁴⁸⁾ 이에 미 국무부는 연세대학교가 경영학 원조에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원조사업을 추진한 것이다.⁴⁹⁾

1950년대 학계의 새로운 풍조는 미국 유학파들이 급부상하면서 미국 단기연수 및 미국 유학이 급증하였고, 미국식 학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였다. 기독교 학교인 연세대학교에서는 일제시기도 미국유학파가 교수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였지만, 일제시기까지만 해도 미국 유학파를 “무식하고 실력 없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였다.⁵⁰⁾ 일본 유학파가 득세하던 시절이었고, 그중 제국대학 출신들은 사회 각 분야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남한을 점령하고, 미군정이 현실권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미군정이 실시되고 미국 유학파들이 관계, 학계에서

48) 金奎三(1967), “自主發展을 向한 韓國經濟學의 人脈”, 『産業과 經營』 제2권 제1호, 1967, 798-799.

49) 교육부장관 백낙준은 1954년 서울대학교에 집중된 미국의 교육원조프로그램이 유수 사립대학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미국정부를 설득하였고, 1955년 7월 한국정부와 OECD는 ICA기술원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경영학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미국의 담당대학이 지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가 1957년 말 백낙준이 워싱턴대학 측을 접촉하고, 워싱턴대학 측이 한국을 방문한 후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연세대학교백년사편찬위원회(1985), 『연세대학교백년사 1-연세통사(상)』, 606-608).

50) 申泰煥(1982), 『大學과 國家』, 亞細亞文化社, 221 ; 나기호(1982), 『비바람 몰아쳐도』, 양서각, 131 ; 백낙준(1995), “회고록”, 『백낙준전집 9-회고록·종강록』, 연세대학교출판부, 14.

중용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일본 유학파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가 된 것 같은 상실감을 느꼈고,⁵¹⁾ 이러한 상실감은 1950년대 이후 학자들의 미국 연수와 유학 붐을 일으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⁵²⁾

학자들의 미국 유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미국의 교육원조 프로그램이었다. 미국 정부는 후진국의 지식인들에게 미국 연수와 유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국가에 미국의 제도와 문화를 이식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시아의 반공보루로서 사회주의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한국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제도와 문화가 뿌리내리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다. 이에 미국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까지 집중적으로 교육원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미국의 제도와 문화를 한국에 직접 이식시키고자 하였다.⁵³⁾

대학에 대한 미국의 원조에는 ICA자금에 의한 기술원조 프로그램과 미국무성 자금에 의한 스미스먼트(Smithmuntt) 프로그램이 있었다.⁵⁴⁾ 미국무성의 스미스먼트 프로그램이 시찰과 연수, 유학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ICA자금에 의한 원조 프로그램은 단과대학의 신설과 재편 등 대학의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원조 프로그램이었다. 서울대학교와 경북대학교, 해양대학교 등 국립대학에서 시작된 미국의 교육원조는 점차 사립대학으로 확장되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시행된 워싱턴대학프로젝트였다.

51) 申泰煥(1982), 『大學과 國家』, 亞細亞文化社, 123·221 참조.

52) 문교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53~1973년의 20년간 해외유학생 총수에서 미국이 점하는 비율은 약 90%였다. 일본은 1%에도 미치지 못했고, 유학생 수 2위를 점했던 서독의 비율도 3.3%에 불과했다. 미국은 유학의 독점지역이나 마찬가지였다(李圭煥(1983), “韓國教育發展에 미친 外國의 影響”, 『亞細亞研究』 제69호, 47).

53) 미국의 교육원조는 시설원조와 기술원조로 대별되는데, 기술원조는 주로 교육인력의 훈련, 즉 교수, 교사, 관료, 기업인 등에 대한 해외연수와 해외유학, 미국의 파견단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54) 이진이(1988),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교육원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34-57. 비록 단기연수였지만 스미스먼트 프로그램으로 미국 경력이 생긴 교수들은 미국 출신과 동등한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연수과정에서 생긴 미국 교수들과의 교분을 바탕으로 국제학술교류를 하고, 해당 학교의 동창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미국 경력을 십분 활용하였다(申泰煥(1982), 『大學과 國家』, 亞細亞文化社, 221-226 참조).

ICA기술원조에 의한 워싱턴대학프로젝트는 1958년 2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워싱턴대학 사이에 3년간의 계약이 체결되면서 본격화되었다. 55) 워싱턴대학프로젝트에서는 교수의 교환, 경영학 교육을 위한 시설 및 도서의 확충, 56) 실업계와 대학의 상호 관계 개선, 실업계 경영자층의 재훈련, 경영학 교과서 재편성, 교수방법의 개선 지도, Case 자료의 수집 등 7가지를 중요 사업으로 설정하였지만, 핵심은 경영학과의 신설과 재계 최고 경영자층의 훈련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세대학교에서는 “미국 경영학 교육제도를 참작하여 상경대학에 경영학과를 신설”하고, 상경대학의 공통 필수 기본과목에 기존 교과목 외에 배급론, 인사관리론, 생산관리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57) 프로젝트의 초기단계부터 상경대학의 재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로써 1946년부터 유지되던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의 경제학과, 상학과 체제는 1958년 12월 10일 경제학과, 상학과, 경영학과의 삼분 체제로 변화하였다. 58)

경영학과의 신설되면서 이정환·이기을·정종진(1차), 김규삼·이길현·임익순(2차), 이종하·이규원·송자(3차), 김상겸·송태영·이제민(4차)이 순차적으로 도미하여 미국 경영학 연구방법과 교육방식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59) 1959년부터 1961년까지는 길리랜드(Chorse E. Gililand), 앤드루스(Andrus)와 에모리(Emory), 맨하드(Manhart), 신들러(J. S. Schindler), 왈쉬(Walsh Jr.) 교수 등이 연세대학교에 파견되어 시장조사, 기업재무, 판매관리, 광고, 마케팅세미나 등의 강의를 담당하는 한편,

55) 연세대학교백년사편찬위원회(1985), 『연세대학교백년사 1-연세통사(상)』, 1985, 589-596 ; 고려대학교90년지편찬위원회 편(1995), 『高麗大學校九十年誌 : 1905~1995』, 高麗大學校, 341-342 ; “상경대학 개편계획안”(1958),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관련철』(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참조.

56) 워싱턴대학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워싱턴대학은 1,700여권의 장서와 환등기, 영사기, 오버헤드프로젝터, 타자기, 계산기, 각종 등사용기를 연세대학교에 기증하였다.

57) “상경대학 개편계획안”(1958),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관련철』(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58) 1968년에 상학과가 경영학과로 통합되면서 상경대학의 경제학과, 경영학과 양분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2003년 경영대학이 신설되면서 상경대학의 경제학과와 경영대학의 경영학과로 분리되었다.

59) 李廷煥(2000), 『逸松 李廷煥 回顧錄 : 象牙塔과 公職과 그리고 企業의 언저리에서』, 92-93-97 ; 李氣乙(1999), 『島雲자서전』, 博英社, 326-328 ; 金奎三(1967), “自主發展을 向한 韓國經濟學의 人脈”, 『産業과 經營』 제2권 제1호, 1967, 800 참조.

한국인 교수를 개별적으로 지도하였다.⁶⁰⁾

미국인 교수의 수업에는 한국인 교수가 1명씩 배치되어 통역을 담당하였고, 미국인 교수가 귀국한 후에는 통역을 담당했던 교수가 그 과목을 이어 받아 통역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강의하였다.⁶¹⁾ 미국의 경영학 연구방법과 토론식 교수법을 이식하는 방식이었다.⁶²⁾

워싱턴대학팀은 경영학 이론과 실무교육을 학계뿐 아니라 재계로까지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1958년부터 온양에서 워싱턴대학·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가 주최하고, 정부와 주한경제협조처(USOM)가 후원하는 ‘경영실무연구회’가 매년 개최되었다.⁶³⁾ ‘경영실무연구회’에서는 한국에는 생소한 분야였던 인사관리, 생산관리, 기업회계, 재무분석 등 경영학 이론과 경영관리 실무를 최고경영자층에게 강의하였다.⁶⁴⁾ 주최측은 최고경영자층을 대

60) 연세대학교백년사편찬위원회(1985), 『연세대학교백년사 1-연세통사(상)』, 606-608 ; 김기영(2005), “연세대학교 경영학의 90년 :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맥”, 『연세경영연구』 제42권 제2호, 268-269 참조. 실업계의 현안과 직결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1959년 산업경영연구소가 신설되었는데 미국인 파견교수 중 로빈슨(Robinson)과 라이덴바흐(Reidenbach)가 연세대학교의 황일청, 고려대학교의 김행권과 함께 “한국 가죽산업에 대한 연구 1958~1959”를 진행하면서 밝힌 연구의 제1 목적 또한 두 대학교 (연세대, 고려대)의 교수진들에게 산업실태 및 경영 조사 연구방법론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A Study of the Leather Industry of Korea for the Years 1958 and 1959”, Prepared by J. George Robinson, Richard C. Reidenbach, Wang Il Cheng, Kim Haeng Kwon, Seoul Korea, May 1960).

61) 나기호(1982), 『비바람 몰아쳐도』, 양서각, 198-199. 통역과정에서 전수된 내용은 교재편찬으로도 이어졌다. 이기을 교수가 1960년 번역한 『미국의 기업금융: 재무관리의 기본과제』는 워싱턴대학 도튼(Chal. A. Dauten)교수의 *Business Finance: The Fundamentals of Financial Managemnet* 제2판을 번역한 것으로서, 이 책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했던 길리랜드 교수가 수업시간에 사용한 교재였으며, 이기을 교수는 길리랜드 교수의 수업 통역을 담당했다(성태윤(2015), “1950년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학풍”, 『해방후 연세학풍의 전개와 신학문 개척』, 해안, 4장 2절 참조).

62) 김규삼은 한국의 경영학 도입과정을 성찰하면서 초기에는 미국의 경영학을 “무차별하게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이후에는 우리 풍토에 맞는 “우리의 경영학”으로 소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金奎三(1967), “自主發展을 向한 韓國經濟學의 人脈”, 『産業과 經營』 제2권 제1호, 1967, 802·808)].

63) ‘경영실무연구회’는 1958년, 1959년, 1961년의 제3회까지는 워싱턴대학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3자가 주최가 되어 개최하였으나, 1962년과 1963년에는 워싱턴대학과 연세대학교가 주최하였으며, 워싱턴대학팀이 철수한 후에는 연세대학교 단독으로 1970년대까지 개최하였다(“溫陽에서 開催 經營實務研究會”, 『東亞日報』 1958년 7월 15일자 ; “經營實務”研究會 3個大學教授參加”, 『東亞日報』 1961년 7월 4일자 ; “經營實務研究 延世 워싱턴大 共同으로”, 『京鄉新聞』 1963년 6월 19일자 ; “經營實務研究會 開催 溫陽서 9일부터”, 『每日經濟』 1967년 6월 30일자 참조).

상으로 한 강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기업가들이 “현대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전후의 자본주의 질서와 자유경쟁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업문화”가 창출되기를 기대하였다.⁶⁵⁾ 경영실무연구회는 재계에 미국식 경영학 이론과 기법이 도입된 직접적인 계기였다.

2. 학생들의 ‘건의안’ 수용과 한국적 경제학의 추구

상경대학의 개편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학생들 또한 상경대학의 쇄신을 위한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문제의식은 1959년 2월 26일 상경대학 졸업예정자 50여 명과 총장, 문과대학장, 학생처장, 상경대학 교수들이 참석한 공개좌담회 자리에서 배중완·유일수·정익주·이회경 외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졸업예정자 22명이 백낙준 총장에게 연서로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⁶⁶⁾

이 건의문에서 학생들이 시정을 건의한 것은 첫째, 교수 중심의 고답적인 교육방식, 둘째, 교강사들의 일방적인 교과목 편성과 시간 배정, 셋째, 교과목의 다양성 부족이었다. 특히 학생들은 강사들의 편의를 위주로 강의 시간을 배정하고 시간표 작성 후에 담당교수가 변경되거나 교과목이 폐지되는 관행을 문제 삼았고, 교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전공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육내용과 형식의 내실화, 충실화를 촉구한 것이었다.

외래 시간강사들의 수업 부실과 일방적인 강의진행은 전쟁 때부터 지적되어온 고질적인 문제였다. 연희대학교는 1954년 4월 학제개편을 단행하면서

64) 강의는 경영실무연구회에 맞추어 파견된 워싱턴대학의 교수와 한국에 파견 나와 있는 워싱턴대학 교수,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들이 진행했다. 미국인 교수가 강의하면 한국인 교수는 미국인 교수의 강의를 통역하는 한편, 한국의 특수 문제에 대한 강의를 담당했다. 처음에는 미국식 사례연구를 한국인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이었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金奎三(1967), “自主發展을 向한 韓國經濟學의 人脈”, 『産業과 經營』 제2권 제1호, 1967, 800 ; 나기호(1992), 『비바람 몰아쳐도』, 양서각, 197-198].

65) “現代의인 技術導入緊要, 企業經營研會서 원氏 演說”, 『경향신문』 1958년 7월 5일자.

66) 배중완·유일수·정익주·이회경 외 상경대학졸업생예정자 일동(1959), “建議文”, 『연희대학교 상경대학 교수회 관련철』(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 “商經大學서 學校當局에 建議文-總長 教授들과의 意見交換 자리에서”, 『연세춘추』 제2권 제160호, 1959년 4월 6일자.

교수와 학생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수의 시간강사제를 폐지하며, 학생 중심의 교수법을 개발할 것을 주장한 바 있었다.⁶⁷⁾ 1955년 5월 학도호국단 지도위원과 학생대표 간의 학생 생활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토막 강의를 방지하고, 노트정리식 강의가 아닌 토론식 강의를 지향할 것을 교수들에게 진언할 것을 결의한 바도 있었다.⁶⁸⁾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시정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세 방향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수진을 안정화하고 교과목을 확충하여 수업의 내실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무책임한 '외래강사제'를 재고하고 교수의 연구생활을 보장할 것, 강의 담당에 신중을 기하고 강의내용을 충실화할 것, 교과목을 늘여서 학생들의 선택 여지를 부여하고 교양과목을 재편성할 것, 수업 초반에 강의계획을 공표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 졸업반 교육에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참작할 것 등이었다.

다음으로는 학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험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학점 미달자를 엄중 처단할 것, 등록 후 과목별 담당교수를 공지하고 확정할 것, 휴강과 결강을 없애도록 하고 가급적 예고할 것, 강의시간표 작성에 있어서 학생 위주로 편성할 것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상경대학 학관과 상경실무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간이도서관 및 휴게실을 설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교수 질의 저하와 강의내용의 불충실로 인해 학업 의욕이 저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교 측은 표면적으로는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쇄신에 대한 학생들의 「건의문」을 수용하지 않았지만,⁶⁹⁾ 이후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은 큐슈대학 경제학 박사이자 학계의 중진인 최호진, 일리노이대학 경제학 박사이며 킹스대학 교수를 역임한 박기혁 등을 경제학과 교수로 영입하여 교수진의 강화를 꾀하는 한편, 교강사의 이중직책을 금지하고,⁷⁰⁾ 외래강사에 대한 수업의존

67) “學制改編에 關하여-申敎務處長 談話發表”, 『연회춘추』 제1권 제9호, 1953년 12월 1일자.

68) “敎授方法 改良 校服 着用, 學護指導委員과 學生代表懇談會”, 『연회춘추』 제1권 제48호, 1955년 6월 1일자.

69) 건의문을 제출한 학생들은 교수들에게 낙인이 '찍혀서' 대학원 진학도 어려웠다고 한다(2014년 10월 1일 최호진 교수 탄신 100주년 기념강좌 참석자談).

70) 한국은행조사부 직원이자 연세대학교 전임강사였던 이기일은 1959년 미국에서 귀국하니, 이중직에 대한 물의가 일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이에 이기일은 1959년 2월 19일 한국은행 기획조사과를 사직하고, 연세대학교의 전임교수로 신변을 정리하

도를 낮추고자 노력하였다. 경영학과가 신설되어 경제학과 교수들이 경영학과로 대거 자리를 옮기면서 경제학과 교수진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었고, 상경대학 개편안에서 표방한 ‘실천경제학’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수진의 확보가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실천경제학’은 1950년대 말 상경대학 개편과정에서 교수들이 고민해온 경제학과의 성격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경영학과를 신설하고 커리큘럼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을 단행하면서 상경대학 교수들은 과연 경제학과의 성격이 ‘이론경제학’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실천경제학’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였다. 더불어 경제학과를 문리과대학에 편재할 것인가, 상경대학에 잔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였다.⁷¹⁾

고민의 결과 상경대학 교수들은 경제학과가 종래의 이론 추구 중심에서 기업경영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실천이론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론 응용과 정책수립에 대한 실천이론을 발전시킬 경제학과를 기업경영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상학과·경영학과와 더불어 상경대학의 틀 속에서 병행, 발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표 6〉 1965년 상학과 학정표(The academic calendar of the Department of Commercial Science in 1965)

2	전공필수	화폐금융론, 회계학원리Ⅱ(송태영), 통계학, 상학원강ⅠⅡ
	전공선택	경제사, 고급통계학, 경제지리, 가격론, 타자Ⅱ(나민수)
3	전공필수	중급회계(송태영), 원가계산(김규삼), 기업금융론(이기을), 재무관리(이기을), 상학원강ⅠⅡ
	전공선택	재정학, 투자론, 경영분석(김충극), 보험론(한동호), 상법대의, 민법대의
4	전공필수	상학연습ⅠⅡ(송태영)
	전공선택	회계감사(김규삼), 회계학연습, 재무관리연습, 한국경제론, 상학원강ⅠⅡ, 상업통신

자료: 『연세대학교 요람 1965』, 153-154.

Source: Yonsei University Bulletin 1965, 153-154.

였다[李氣乙(1999), 『烏雲자서전』, 博英社, 298-299].

71) 김상겸, “정세에 따른 연구분야의 재검토와 지향할 경영학의 사명”, 『연세춘추』 제2권 제154호, 1959년 1월 15일자 ; “상경대학의 새로운 전망-상경대학 제공”, 『연세춘추』 제2권 제160호, 1959년 4월 6일자 ; 정종진, “상경대학에 있어서 經濟學科의 位置와 方向”, 『연세춘추』 제2권 제161호, 1959년 4월 13일자 참조.

〈표 7〉 1965년 경제학과 학정표(The academic calendar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s in 1965)

2	전공필수	경제사개설(오일홍), 화폐론(오창준), 금융론, 회계학원리 I II, 통계학(이규화), 고급통계학
	전공선택	경영학개론, 공업경제학(한당옥), 마케팅, 경제지리학(나기호), 국민소득론, 경제학원강 I II(나민수), 근대경제사(오일홍), 타자 I II, 제2외국어원강 I II
3	전공필수	재정학(김대준), 가격론(한기춘), 경제학원강 I II(나민수)
	전공선택	농업경제학(박기혁), 중급회계, 투자론, 경제학연습, 상품학, 재정정책, 농업정책, 경제정책(김상겸), 국제경제학(이제민), 경제계획(김상겸), 보험론, 상법대의(박원선), 민법대의(이근식), 제2외국어원강 I II, 계산기 I II
4	전공필수	경제학사 I II(박기혁)
	전공선택	관리경제학, 중소기업론, 무역실천, 경기변동론, 현대경제학, 한국경제사(오일홍), 경제학원강 I II(오일홍, 박기혁), 사회보장론, 협동조합론(나민수), 한국경제론, 노동경제학, 사회정책, 외환론(이제민), 상업통신, 경제발전론, 실업영어 I II, 경제학연습 I II, 비교제도로론, 인사관리, 생산관리

자료: 『연세대학교 요람 1965』, 156-158.

Source: Yonsei University Bulletin 1965, 156-158.

〈표 8〉 1965년 경영학과 학정표(The academic calendar of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1965)

2	전공필수	경영학원론 I III(이기을), 화폐론, 통계학개설, 마케팅(유봉로), 경영학원강 I III(윤석범)
	전공선택	경제사, 추계통계학, 경제지리학, 가격론, 제2외국어원강 I II
3	전공필수	배급관리(이종하), 인사관리(정종진), 생산론, 생산관리, 경영학원강 I III(윤석범)
	전공선택	재정학, 상품학(유봉로), 판매관리(이종하), 계산기 I II, 상법대의, 민법대의, 제2외국어원강 I II
4	전공필수	경영정책, 관리경제학(이제민), 경기예측(임익순), 경영학연습 I II
	전공선택	공기업론, 중소기업론, 외환론, 경영조사(유봉로), 소매경영론, 무역론(김권태), 무역실천(한동호), 광고론(유봉로), 무역경영론, 인간관계, 산업관계론, 한국경제론, 경영학원강 I II, 실업영어 I II

자료: 『연세대학교 요람 1965』, 166-167.

Source: Yonsei University Bulletin 1965, 166-167.

주목할 만한 현상은 교수진의 강화와 교강사의 이중직책 금지, 외래강사제 축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 후, 경제학과를 중심으로 교과목이 확충되어 학생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강사진을 연구자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수업이 내실 있게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한 '실천경제학'의 관점에서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지도가 강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표 9〉 1960~1965년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목록(The list of master's theses at the Department of Economics in 1960~1965)

논문 제출일시	논문제목	이름	지도 교수
1960. 3. 2	Sir William Petty의 價値論 考察	李滂言	최호진
	韓國 農業協同組合의 現實分析	나민수	김준보
1961. 2.28	후진국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의 구조분석	오창준	이정환
	構造論的 動態 經濟理論의 考察 : F.A.Hayk의 理論을 中心으로	鄭翊周	이정환
1961.12.27	집단안전 보장체제가 후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당욱	이정환
	中間層 增大를 爲한 序說論的 考察	장찬섭	최호진
1961.12.27	後進國(韓國) 經濟開發計劃과 重點的 投資方向 : 特히 韓國 經濟開發計劃의 始初段階에 즈음하여	金重鉉	이정환
1963. 3.25	韓國經濟成長과 農業生産力에 關해서	李盛道	최호진
	交易條件의 長期趨勢分析 : 1870-1950	吳壽賢	오일홍
	後進國(韓國)的 立場에서의 經濟哲學理論考察	吳鍾錫	최호진
	後進國經濟開發과 政府의 役割 : 우리나라 經濟開發計劃에 對한 考察을 中心으로	柳京子	최호진
	農産物 價格安定을 爲한 流通構造改善 : 韓國米價를 中心으로	趙樂教	박기혁
	中小企業成長과 金融問題分析 : 韓國 中小企業의 借入能力과 危險性을 中心으로	申龍鶴	오일홍
	中共 第一次五個年計劃의 分析和 批判	方燦榮	오일홍
	經濟開發과 財政投資	閔泰亨	최호진
	農村開發案에 關한 研究	金東奎	최호진
	資本市場과 經濟發展 : 韓國株式市場의 現實分析和 育成을 爲한 政策研究	申建熙	최호진
1964. 2.20	韓國의 所得分布	蔡汶奎	최호진
	資金決定理論研究 : 限界生産力說을 中心으로 하여	尹錫範	최호진
1964. 9.30	韓國 勞動 生命作作成을 爲한 첫段階로서의 韓國 簡易 生命表 作成 試案	金日炫	최호진
1965. 2.22	韓國 農業構造改善에 關한 研究 : 經濟發展과 關聯하여	金碩熙	박기혁
	韓國 經濟의 開發을 爲한 模型	桂明善	최호진
	韓國 失業問題와 國土 建設事業	金泯峯	최호진
	利子率理論과 金利政策	金知煜	오일홍
1965.10.15	經濟成長과 技術要因에 關한 一研究 : 經濟成長의 誘發要因으로서의 教育 및 研究開發에 對하여	辛容輝	최호진

자료: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소장되어 있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참조.

Source: Master's theses from the Department of Economics of the Yonsei University kept in the Yonsei University Library.

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한 1954년부터 1965년까지 상경대학 석사 졸업생은 경제학 38명, 상학 7명, 경영학 18명 등 총 63명이었다.⁷²⁾

72) 1965년까지 박사학위 졸업자는 배출되지 않았다.

석사 졸업생의 수는 1950년대의 13명에서 1960년대 46명으로 크게 늘었고,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학 25명, 상학 3명, 경영학 18명으로 경제학자가 많았다. 내용적으로 보면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은 페티의 가치론과 하이예크의 동태경제이론, 한계생산력설을 중심으로 임금결정이론을 분석한 세 논문⁷³⁾을 제외하면, 한국의 경제현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과 경제개발을 주제로 한 논문이 다수였다.

경제학과 대학원생의 연구지도는 최호진·김준보·이정환·박기혁·오일홍 교수가 담당하였다. 1960년대 초 이정환·김준보 교수가 사임함에 따라 1960년대에는 최호진·박기혁·오일홍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연구지도를 전담하였다. 특히 25명 중 14명을 지도한 것으로 보아 대학원생 연구지도의 중심에 최호진 교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호진 교수는 일제시기 『근대조선경제사』로 명성이 높았던 인물로서 전쟁기에 한국경제학회를 창립하였고, 많은 인재들을 중앙대학교 강사진으로 불러 학계 등용의 길을 열어준 “보스 기질의 은사”⁷⁴⁾이자 명실상부한 학계의 중진이었다. 그의 연구와 저술활동은 일반 경제사와 조선시대부터 해방 후에 이르는 한국경제사 전반을 아우르고 있어⁷⁵⁾ 한국의 실천경제학을 이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책임자였던 셈이다.

최호진 교수를 중심으로 박기혁, 오일홍 교수가 전담해서 지도한 1960년대 초 대학원생들의 석사학위 논문 주제를 살펴보면, 후진국 경제이론, 농촌개발, 중간층 증대론, 국토개발사업, 실업문제와 경제개발계획 등 한국경제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후진국의 경제이론을 다룬 논문들은 역사학과와 케인즈주의, 자유주의사상과 마르크스주의사상, 로스토우 및 후진국개발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론이란 시대적 요구와 조건에 의해 탄생한 것이므로 시사점을

73) 李淳言(1960), “Sir William Petty의 價値論 考察”,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鄭翊周(1961), “構造論的 動態 經濟理論의 考察 : F.A.Hayk의 理論을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尹錫範(1964), “賃金決定理論研究 : 限界生産力說을 中心으로 하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74) 宋基撤(2004), 『高麗大學校와 나』, 保景文化社, 55.

75) 최호진의 경제사 연구내용과 저술활동에 대해서는 홍성찬(2011), “최호진의 경제사 연구와 저술의 사회사: 1940~60년대”, 『東方學志』 제154집; 吳鎭錫(2014), “해방 전후 崔虎鎭의 학문세계와 학술활동”, 『한국경제학보』 제21권 제2호 참조.

언을 뿐 그 어느 것도 한국 사회에 직접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사회에 맞는 이론과 정책을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⁷⁶⁾

다음으로 농업과 농촌개발을 다루는 논문들에서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각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농민 소득을 증대하여 농민을 자립시키는 한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산업을 기업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그것이 쉽지 않으므로 농민을 협동화하여 자립적인 생활체로 만들고, 농업 협동조합이 관계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農工並進’, ‘國利民福’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⁷⁾

중간층 증대론을 다룬 논문에서는 중간층 증대를 위해선 경제성장이 되어야 하고, 경제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이 되어야 하며, 원시적 자본 축적 단계에서는 빈익빈부익부가 당연하다는 논리가 팽배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복지국가론이 대두하면서 빈익빈부익부 담론이 약화되고 있음을 논하며,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양립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⁷⁸⁾

중소기업 문제를 다룬 논문에서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실업문제가 심각한 한국현실에서 노동집약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공존시킴으로써, 양자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고용효과를 높일 것을 주문하였다.⁷⁹⁾

국토건설사업을 다룬 논문에서는 공업화의 기반이 되는 산업간접자본의 형성과 대량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국토건설사업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현금 살포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병역 미필자의 동원 방안을 주장하기도 하였다.⁸⁰⁾

76) 吳種錫(1962), “후진국(한국)적 입장에서 경제철학이론 고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77) 나민수(1960), “韓國農業協同組合의 現實分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李盛道, “韓國經濟成長과 農業生産力에 關해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趙樂教(1962), “農産物價格安定을 爲한 流通構造改善-韓國米價를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金東奎(1963), “農村開發案에 關한 研究-韓國地域社會開發事業을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78) 장찬섭(1961), “中間層 增大를 爲한 序說論的 考察”,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79) 오창준(1960), “후진국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의 구조분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80) 金滉峯(1965), “韓國 失業問題와 國土 建設事業”,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한편, 당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실업문제였다. 중점투자를 다룬 논문에서는 경제개발을 위해서 비료, 시멘트, 철강 등의 기간산업과 전력, 석탄 등의 에너지 산업에 중점투자를 하되, 군수품 공장과 연계하여 고용문제 해결까지를 염두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⁸¹⁾

경제개발(계획)을 직접 다룬 논문에서는 자본시장 육성과 인적자원 공급 전략에 의거한 종합적인 계획의 추진과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논하면서도, 경제적인 요소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요소, 즉 정치·사회·문화적인 측면과의 결합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정부의 계획이 국민의 뜻과 만날 때 경제개발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정부와 경제학의 역할이라는 것이다.⁸²⁾

요컨대 1960년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의 주된 내용은 한국의 상황에 맞는 경제개발이론을 확립하고, 공업뿐 아니라 농업,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병행 발전할 수 있는 경제개발을 추진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경제개발이 경제 규모의 성장이라는 외형적인 성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실업문제의 해소와 국민의 자립화, 더 나아가서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경제학과는 교수진의 연구와 지도 방향에 따라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경제현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⁸³⁾ “한국적 경제학”을 추구해가고 있었다.

문.

- 81) 金重鉉(1961), “後進國(韓國) 經濟開發計劃과 重点的 投資方向 : 特히 韓國 經濟開發計劃의 始初段階에 즈음하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참조.
- 82) 閔泰亨(1962), “經濟開發과 財政投資”,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柳京子, “後進國經濟開發과 政府의 役割 : 우리나라 經濟開發計劃에 對한 考察을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金東奎(1963), “農村開發案에 關한 研究- 韓國地域社會開發事業을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申建熙(1964), “資本市場과 經濟發展-韓國株式市場의 現實分析과 育成을 爲한 政策研究”,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辛容輝(1965), “經濟成長과 技術要因에 關한 一研究 : 經濟成長의 誘發要因으로서의 教育 및 研究開發에 對하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참조.
- 83) 오진석은 최호진이 방대한 사료 위에서 치밀한 실증작업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자신의 연구를 디딤돌로 하여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하는 길을 앞장서서 열어주고자 노력했다고 서술하였다[吳鎭錫(2014), “해방 전후 崔虎鎭의 학문세계와 학술활동”, 『한국경제학보』 제21권 제2호, 158-160].

V. 맺음말

지금까지 해방 20년 한국 경제학계의 동향과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의 경제학 교육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해방후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대학, 한국 정부와 미국, 교수와 학생들의 역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가 어떻게 제도화되며 다시 그 제도가 어떻게 학문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후에는 경제이론 및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경제 실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해방된 국가의 동량을 양성할 수 있는 경제 관련 학과의 창설이 시급했다. 일제시기의 전문학교들이 대거 종합대학으로 재건되면서 연희전문학과 상과는 상학원 산하의 경제학과, 상학과 체제로 정비되었다. 3년제의 전문학교가 4년제의 종합대학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학제상의 충돌은 전문부 상과 졸업생을 예과에 편입하여 본과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이로써 1950년대부터는 종합대학의 상경대학 체제 안에서 경제학과와 상학과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일제말 파시즘체제 하에서 반일·반관학의 학풍을 거세당했던 연희대학교에는 해방후 일제말기의 교수진이 복귀하고, 일본 사립대학에서 훈련받은 인재들이 교수진으로 확충되었다. 이들은 고전학과, 역사학과, 신고전과, 케인즈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론적 탐색을 하는 한편, 조선사회사, 조선경제사, 조선경제론, 세계경제사정 등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던 한국의 경제현실과 국제경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48년 남북에 분단정부가 수립되어 사상통제정책이 강화되고, 6·25전쟁이 체제전의 성격을 띠었으므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월북 또는 납북되었을 뿐 아니라 사상적인 이유로 대학을 떠나면서 대학의 사상적 지형이 극히 협소화되었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은 전쟁으로 인한 인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학원을 설립하고 모교 출신 인재들 영입함으로써 교수진의 공백을 메웠고, 교수와 학생들은 상경연우회의 연구조사활동과 연구발표회를 통해 수업 내용의 결손을 보완해나갔다.

전후재건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재건을 위한 정책수립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재양성이 요구되자, 교수진은 산업행정학과와 기업경영학과, 산업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전후재건사업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워싱턴대학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워싱턴대학프로젝트를 통해 경영학과가 신설되었고, 세계 최고경영자층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무교육도 진행되었다. 워싱턴대학프로젝트는 상학과의 교육 방향이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이자, 미국의 경영학 이론과 사례연구방법론, 토론식 교수법이 이식됨으로써 학계의 미국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1959년 초 상경대학 졸업예정자들의 「건의문」으로 표출된 학생들의 쇄신 요구를 학교 측이 수용하여 교수진이 확충되고 강사진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경제학과를 중심으로 수업에 대한 안정화, 내실화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지도가 강화되었다. 경제학과는 실증적인 연구를 토대로 원조경제 이후 한국경제의 자립과 경제부흥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탐색을 시도하였다. 즉, 한국의 경제현실에 대한 주제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적 경제학을 추구해간 것이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은 1950년대 말 상경대학 개편을 단행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하였다. 경제학과를 종래의 이론 추구 중심에서 기업경영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실천이론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론 응용과 정책수립에 대한 실천이론을 발전시킬 경제학과와 기업경영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상학과·경영학과를 상경대학의 틀 속에서 병행, 발전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후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은 미국의 경영학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의 커리큘럼, 토론식 교수법 등의 신사조를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이론적, 실무적 기반을 쌓고자 한 경영학과와 1960년대부터 한국의 경제문제를 실증적,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적 실천경제학'을 추구한 경제학과의 양대 학풍으로 정립되었다.

이 글에서는 해방 20년 한국 경제학계의 동향 속에서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의 경제학 교육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이 주제들의 어떠한 문제의식과 정책적인 개입, 제도적인 재편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수진의 문제의식과 학

술활동, 그들이 구축해간 학풍에 대해서는 천착하지 못하였다.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한국학술사, 한국지성사의 전체상 속에서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이 갖는 위상과 역할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필자의 연구역량을 뛰어넘는 방대한 작업이므로 차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투고 일자: 2015. 11. 1. 심사 및 수정 일자: 2015. 11. 19. 게재 확정 일자: 2015. 11. 19.

◆ 참고문헌 ◆

〈자료〉

經濟學叢, 창간호~제12권 제1호(1953.6~1964.5).

Issues of The Economic Review, First Issue ~ 12-1 (1953.6~1964.5).

東亞日報, 京鄉新聞, 延喜타임스, 연희춘추, 연세춘추.

The Dong-A ILBO, The Kyunghyang Shinmun, The Yonhee Times, The Yonhee Chunchu, The Yonsei Chunchu.

延禧專門學校一覽(昭和十五年度)(1940).

Yonhee College catalog (1940).

延禧專門學校一覽(昭和十六年度)(1941).

Yonhee College catalog (1941).

“延禧大學校學則”(1946).

“Yonhee University Regulations” (1946).

“학사보고서 4285년도”(4286.4.18), 연희대학교 교무처.

“Academic Report of Year 4285” (April 18, 4286), Yonhee University Office of Academic Affairs.

“학사보고서 4286년도”(4286.10.5), 연희대학교 교무처.

“Academic Report of Year 4286” (October 5, 4286), Yonhee University Office of Academic Affairs.

“학사보고서 4287년도”(4288.4.14), 연희대학교 교무처.

“Academic Report of Year 4287” (April 14, 4288), Yonhee University Office of Academic Affairs.

“학사보고서 4288년도”(4289.4.24), 연희대학교 교무처.

“Academic Report of Year 4288” (April 24, 4289), Yonhee University Office of Academic Affairs.

연세대학교 요람 1961.

Yonsei University Bulletin 1961.

연세대학교 요람 1964.

Yonsei University Bulletin 1964.

연세대학교 요람 1965.

Yonsei University Bulletin 1965.

“增科 및 研究所 設置에 關한 商經大學 教授會議錄”(1955.7.2), 연희대학교 상경대학 교수회 관련철.

“The Faculty Meeting Minutes of th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on the Expansion of Departments and the Installation of Research Institute”(July 2, 1955), Files related to faculty meetings of th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of Yonhee University.

“상경대학 개편계획안”(1958),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관련철.

“Renovation Plan for th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1958), Files related to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of Yonsei University.

배종완·유일수·정익주·이희경 외 상경대학졸업생예정자 일동(1959), 『건의문』, 연희대학교 상경대학 교수회 관련철.

Bae, J., Yoo, I. Jeong, I., Lee, H., and Others (1959), “A Proposal”, Files related to faculty meetings of th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of Yonhee University.

〈논저〉

고려대학교90년지편찬위원회 편 (1995), 『高麗大學校九十年誌：1905~1995』, 高麗大學校.

Compilation Committee for the 90 Years' Anniversary Collection of Korea University (1995), *90 Years' Anniversary Collection of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University (written in Korean).

金度演 (1968), 『나의 人生白書』, 康友出版社.

Kim, D. (1968), *The White Paper of My Life*, Seoul: Kangwoo Publishing (written in Korean).

金奎三 (1967), “自主發展을 向한 韓國經濟學의 人脈”, 『産業과 經營』 제2권 제1호, 1967.

Kim, K. (1967), “The Human Network of Korean Economics for

- Independent Development”, *YONSEI BUSINESS REVIEW*, 2-1 (written in Korean).
- 김 균 · 이현창 (2005), 『한국경제학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출판부.
- Kim, G., and Lee, H. (2005),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ics and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written in Korean).
- 김기영 (2005), “연세대학교 경영학의 90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맥”, 『연세 경영연구』 제42권 제2호.
- Kim, K. (2005), “Ninety Year History of Yonsei School of Business: The Academic Genealogy of Silsagusi (practical learning from realities)”, *YONSEI BUSINESS REVIEW*, 42-2 (written in Korean).
- 김용섭 (2005), 『남북학술원과 과학원의 발달』, 지식산업사.
- Kim, Y. (2005), *Development of Academies and Institutes of Science in South and North Korea*, Seoul: Jisiksanupsa (written in Korean).
- 김학은 (2015),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백년사 I-한국의 근대경제학 1915~1956』,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Kim, H. (2015), *100 Years' History of th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of Yonsei University I - Korean Modern Economics 1915~1956*,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written in Korean).
- 나기호 (1982), 『비바람 몰아쳐도』, 양서각.
- Lah, K. (1982), *Through the Storms*, Seoul: Yangseogak (written in Korean).
- 방기중 (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경제사상』, 역사비평사.
- Pang, K. (1992), *Studies i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Thoughts: A Study on Paik Nam Woon's Scholarship and His Political Economic Thought in 1930's and 1940's*, Seoul: Yeoksabipyongsa (written in Korean).
- 백낙준 (1995), “회고록”, 『백낙준전집 9-회고록·증강록』, 연세대학교출판부.
- George Paik (1995), “Memoirs”, *George Paik's Collection 9 - Memoirs · Records off the Last Lecture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written in Korean).

- 서울大學校二十年史編纂委員會 (1966), 『서울 大學校二十年史』, 서울대학교.
Compilation Committee for 20 Years' Histo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6), *20 Years' Histo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written in Korean).
- 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 (1986), 『서울대학교40년사』, 서울대학교.
Compilation Committee for 40 Years' Histo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6), *40 Years' Histo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written in Korean)
- 성태윤 (2015), “1950년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학풍”, 『해방후 연세학풍의 전개와 신학문 개척』, 혜안.
- Sung T. (2015), “The Academic Traditions of th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of Yonsei University in the 1950s”, *The Development of Yonsei Academic Traditions and Pioneering of New Sciences after the Liberation*, Seoul: Hyeon (written in Korean).
- 宋基撤 (2004), 『高麗大學校와 나』, 保景文化社.
- Song, G. (2004), *Korea University and I*, Seoul: Bokyungmunwhasa (written in Korean).
- 宋基撤 (2004), 『日帝下 挫折된 삶』, 保景文化社.
- Song, G. (2004), *Frustrated Life under Japanese Imperialism*, Seoul: Bokyungmunwhasa (written in Korean).
- 송 자 (1997), 『한 가지라도 꼭 부러지면 되는 거요: 송자 前연세대총장의 특 터 놓고 하는 이야기』, 중앙일보사.
- Song, J. (1997), *Be Bright at Least for One Thing: Open Talk with Song Ja, the Former President of Yonsei University*, Seoul: JoongAngIlbo (written in Korean).
- 申泰煥 (1982), 『大學과 國家』, 亞細亞文化社.
- Shin, T. (1982), *University and State*, Seoul: Asiamunwhasa (written in Korean).
- 연세대학교백년사편찬위원회 (1985), 『연세대학교백년사 1-연세통사(상)』, 연세대학교.
- Compilation Committee for the 100 Years' History of Yonsei University (1985), *100 Years' History of Yonsei University 1-Yonsei*

- History (I)*, Seoul: Yonsei University (written in Korean).
- 연세창립80주년기념사업회 (1969), 『연세대학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 Committee for the 80th Anniversary of Yonsei University (1969),
History of Yonsei University,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written in Korean).
- 吳鎭錫 (2014), “해방 전후 崔虎鎭의 학문세계와 학술활동”, 『한국경제학보』 제 21권 제2호.
- Oh, J. (2014), “The Academic World and Activities of Choi Ho-chin in the 1930s to 1950s”, *YONSEI ECONOMIC STUDIES*, 21-2 (written in Korean).
- 윤기중 (1989), “경제·경영학의 학문적 전통”, 『계간연세 진리 자유』 가을호.
- Yoon, K. (1989), “The Academic Traditions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Fall Issue of Yonsei Quarterly Magazine Truth and Freedom* (written in Korean).
- 李圭煥 (1983), “韓國教育發展에 미친 外國의 影響”, 『亞細亞研究』 제69호.
- Lee, K. (1983), “Foreign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Education”,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69 (written in Korean).
- 이기을 (1999), 『도운자서전』, 박영사.
- Lee, K. (1999), *Dowoon's Autobiography*, Seoul: Pakyoungsa (written in Korean).
- 李基俊 (1983), 『教育韓國經濟學發達史』, 一潮閣.
- Rhee, K. (1983), *History of Korean Economics Education*, Seoul: Ilchokak (written in Korean).
- 李秀日 (1997), “1920~30年代 韓國의 經濟學風과 經濟研究의 動向-延專 商科 및 普專 商科를 중심으로”, 『연세경제연구』 제4권 제2호.
- Lee, S. (1997). “The Academic Traditions of Economics and Trends of Economic Studies in Korea in the 1920s~1930s - Focusing on the Department of Commerce of Yonhee College and the Department of Commerce of Boseong College”, *YONSEI ECONOMIC STUDIES*, 4-2 (written in Korean).
- 李廷煥 (2000), 『逸松 李廷煥 回顧錄 : 象牙塔과 公職과 그리고 企業의 언저리에 서』.
- Lee, J. (2000), *Lee Jung Hwan's Memoirs: At the Corners of Ivory Tower, Public Office, and Business* (written in Korean).

- 이진이 (1988), “1950년대 미국의 대한 교육원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Lee, J. (1988), “A STUDY ON U.S. EDUCATION AID TO KOREA IN 1950S”, Master’s thesis of Ewha Women’s University (written in Korean).
- 정진아 (2007), “6·25전쟁 후 이승만 정권의 경제재건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2집.
- Chung, J. (2007), “Syngman Rhe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after the Korean War”,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42 (written in Korean).
- 趙璣濬 (1976), “經濟學”, 『韓國現代文化史大系 II-學術·思想·宗教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Jo, G. (1976), “Economic”, *Outline History of Korean Contemporary Culture II - History of Sciences, Thoughts, and Religions*,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written in Korean).
- 崔虎鎭 (1956), “經濟·商學”, 『大韓民國建國十年誌』, 大韓民國建國十年誌刊行會.
- Choi, H. (1956), “Economics·Commercial science”, *10th Anniversary Collection of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Committee for Publishing the 10th Anniversary Collection of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ritten in Korean).
- 최호진 (2000), “일제말 전시하에서의 학문편력과 해방 후 경제학과 창설”, 『학문의 길 인생의 길』, 역사비평사.
- Choi, H. (2000), “The Journey of Sciences during the War Time under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Foundation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fter the Liberation”, *The Journey of Science, the Journey of Life*, Seoul: Yeoksabipyongsa (written in Korean).
- 洪起玄 (1998), “한국의 경제학 50년”, 『考試界』 제43권 제10호.
- Hong, K. (1998). “50 Years of Korean Economics”, *Gosigye*, 43-10 (written in Korean).
- 홍성찬 (1994), “일제하 연건 상과의 경제학풍과 ‘경제연구회’ 사건”, 『연세경제연구』 창간호.
- Hong, S. (1994), “The Academic Traditions of Economics at the Department of Commerce of Yonhee College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Economy Study Group’ Incident”,

YONSEI ECONOMIC STUDIES, 1 (written in Korean).

홍성찬 (2011), “최호진의 경제사 연구와 저술의 사회사 : 1940~60년대”, 『東方學志』 제154집.

Hong S. (2011), “Social History of Choi Ho-Chin’s Works on Economic History: 1940~60s”, *The Dong Bang Hak Chi*, 154 (written in Korean).

CHOSUN CHRISTIAN UNIVERSITY BULLETIN 1956-1957, Seoul: CHOSUN CHRISTIAN UNIVERSITY.

Robinson and Reidenbach., Wang, I., Kim, H. (1960), “A Study of the Leather Industry of Korea for the Years 1958 and 1959” *YONSEI UNIVERSITY 1959-1960*, Seoul: YONSEI UNIVERSITY.

〈부록 1〉 해방 20년(1945~1965)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교수진 명단(The faculty list of th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of Yonsei University after the Liberation (1945~1965))

	1946	1950	1952	1953	1955	1956	1957	1959	1961	1964	1965
교수	이순탁 장희창 고승제 박호삼 신태환 송종극 육지수 최인갑 최문환 조기준 김성현	박호삼 홍승국 김두희 윤만중 서정갑	조의설 김상겸 김척도 김준보 이정환	홍승국 김상겸 김척도 김준보 이정환	홍승국 김상겸 김척도 이정환	홍승국 김상겸 김척도 이정환 차균희	홍승국 김상겸 김척도 이정환 차균희 김규삼 오일홍	김상겸 이정환 김규삼 오일홍 이기을 정종진 송태영 Andrus Gilliland Manhard (Emory)	김상겸 나기호 송태영 박기혁 이기을 정종진 임익순 이승운 Shindler Walsh Jr.	최호진 김상겸 송태영 김규삼 오일홍 이기을 유봉로 임익순 김대준 정종진 임익순 방갑수 이종하 이제민	최호진 김상겸 송태영 김규삼 오일홍 이기을 김근하 이규원 이규원 이규원
전임강사			김준보 김규삼	김규삼 오일홍	김규삼 오일홍 오윤복 이기을 조익순 정종진	김규삼 오일홍 오윤복 이기을 조익순 정종진 임익순	오윤복 이기을 정종진 임익순 이종하 황일청	오윤복 임익순 이종하 이제민 이길현 황일청	이제민 이종하 황일청	이규화 김근하 이규원	이규화 이규원
강사		최호진 김두희 이한빈 박상내 안림 강영남 오일홍 황병준 박동규 윤만중 한승인 김규삼 이정환 김동수 강석오	최호진 강영남 김병국 송태영 박동규 윤만중 정하정 이동택 강석오 한승인 (김세훈)	최호진 신태환 김준보 이동영 송종극 (이동영) (김신찬) (박동규) (장경학)	최호진 김준보 (김신찬) (박동규)	최호진 김신찬 김효록 이상구 송태영 박동규 이제민 윤인상 (신태환)	최호진 김준보 강윤규 김문식 이상훈 차균희	이규화 김대준 이석륜 이기준 정수영 유호선 김해천 남덕우 (최기근) (박동규)	나기호 남덕우 이승운 석진동 나민수 윤기중 송 자 한당욱	한동호 김종극 유계준 나기호 김권태 석진동 오창준 한당욱 (윤석범)	

자료: “학사보고서 4285년도”(4286.4.18), 연희대학교 교무처 ; “학사보고서 4286년도”(4286.10.5), 연희대학교 교무처 ; “학사보고서 4287년도”(4288.4.14), 연희대학교 교무처 ; “학사보고서 4288년도”(4289.4.24), 연희대학교 교무처(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 CHOSUN CHRISTIAN UNIVERSITY BULLETIN 1956-1957, CHOSUN CHRISTIAN UNIVERSITY, Seoul, Korea ; YONSEI UNIVERSITY 1959-1960,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연세대학교 요람 1961』 ; 『연세대학교 요람 1964』, 『연세대학교 요람 1965』를 참조하여 재구성.

Source: Reorganized from “Academic Report of Year 4286” (April 18, 4286), Yonhee University Office of Academic Affairs ; “Academic Report of Year 4287” (April 14, 4287), Yonhee University Office of Academic Affairs ; “Academic Report of Year 4288” (April 24, 4289), Yonhee University Office of Academic Affairs (Yonsei University Museum); CHOSUN CHRISTIAN UNIVERSITY BULLETIN 1956-1957, CHOSUN CHRISTIAN UNIVERSITY, Seoul, Korea ; YONSEI UNIVERSITY 1959-1960,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Yonsei University Bulletin 1961 ; Yonsei University Bulletin 1965.

〈부록 2〉 1950년대 연세대학교 상경연우회의 임원진(The executive team of the Yonsei Club of Commerce and Economics of Yonsei University in the 1950s)

	1952.12	1953.11	1954.7	1955.5
회장	全石斗(경4)	金相浚(상4)	金永煥(총)	吳敬世(경4) ⁸⁴⁾
부회장	金相浚(상4)	李永相(경4)	池栢永(경3)	金泰(경4) 崔文煥(경4)
총무부장	崔漢衡(경4)	尹權(상4)	金基宇(상4)	馬百亨(상4)
차장	黃永錫(상3)	任正鎬(상3)	韓重燮(상3)	金道源(상2)
섭외부장	李觀熙(경4)	黃一淸(상4)	姜亨敦(상3)	石鎭觀(경4)
차장	李載淵(상3)	秦光燮(상3)	閔德基(경3)	李德洙(상2)
연구부장	李榮秀(경4)	安商國(경4)	張賢植(경4)	申在龍(경2)
차장	安商國(경3)	申在龍(경3)	趙泰燦(경3)	姜英基(경3)
출판부장	吳敬世(경3)	崔文煥(경3)	吳興澤(경3)	盧章鎬(상4)
차장	申在龍(경2)	盧章鎬(상3)	姜岐澤(상3)	鄭重烈(경1)
재정부장				金棟熙(경4) 鄭貞南(경3)
평의회회장				韓寅洙(경4)
평의회부회장				康亨敦(상3)
	1956.3 ⁸⁵⁾	1957.4	1958.3	1959.4
회장	蔡權秉(상3) ⁸⁶⁾	權錫珍(상3)	金宇中(경3)	徐在明(경3)
부회장	黃圭艱(경3) 鄭榮慕(경3)	李榮培(상3) 趙泰和(경3)	崔完植(경3) 鄭泰萬(상3)	朴炳柱(경3) 李泰植(상3)
총무부장	金德星	梁東奎(상3)	金世彬(상4)	吳壽賢(경3)
차장	張錫煥	閔漢基(상2)	柳元培(경2)	李應浩(상2)
재정부장	金宇榮	金天壽(상3)		金榮基(경3)
차장	李棋夏	趙炳燦(경2)		桂昌浩(상2)
섭외부장	金正煥	李今洪(상2)	李文揆(경3)	兪元培(경3)
차장	權錫珍	柳稷相(상2)	洪奉紀(상2)	金聖鎬(상2)
경제학연구부장	吳平東	河尙鎬(경3)	宋炳南(경3)	吳鍾錫(경2)
차장	鄭翊周	崔完植(경3)	林漢升(경2)	景周鉉(경2)
상학연구부장	田忠秀	金常均(상3)	閔漢基(상3)	金成坤(상3)
차장	金天壽	趙承奎(상2)	具在龍(경2)	李仁鎬(상2)
경영학연구부장			朴在煥(상3)	李春雨(상3)
차장			崔鍾律(상2)	李重赫(영2)
산업경제학연구부장			申允植(경3)	池聖鎬(경3)
차장			池聖鎬(경3)	權會文(경2)
출판부장	鄭重烈	南相文(상3)	李鍾哲(상3)	趙孝植(경3)
차장	姜信泰	姜信泰(경2)	徐在明(경2)	吳世鎬(상2)
평의회회장	陳炯棋	金容範(상3)	金學洙(상3)	
평의회부회장	鄭翊周	金學洙(상2)	吳鍾錫(경2)	

자료: 『經濟學叢』 각 호를 참조하여 작성.

84) 1955년 12월 회장 오경세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부회장 金泰를 회장 서리로 선출하였다.

85) 1955년 5월 부산분교의 연우회 분회 설치를 위해 회장과 섭외부장이 파견되었고, 그 결과 분회 조직과 동일한 조직체계를 가진 상경연우회 부산분회가 설치되었다. 『經濟學叢』에는 1955년과 1956년의 부산분회 임원진 명단이 실려있는데 1955년 임원진은 회장 金世坤, 부회장 任杞澤, 총무부장 盧相國, 차장 辛承賢, 재정부장 李應洙, 차장 崔承旭, 섭외부장 韓權圭, 차장 鄭禧泳, 경제학연구부장 金珠碩, 차장 姜錫中, 상학연구부장 金鍾旭, 차장 金東龍, 출판부장 李炳燦, 차장 李鍾哲이고, 1956년 임원진은 윤순근(상2), 부회장 배기대(1), 총무부장 강석중(경2), 차장 배영호

주: 임원진은 각 과의 학년 대표로 구성된 평의회에서 선출하였다.

Source: Prepared based on the issues of THE ECONOMIC REVIEW.

Note: The executive team was elected by the Board of Trustees comprising the representatives of the classes of each department.

〈부록 3〉 1960년대 연세대학교 상경연구회의 임원진(The executive team of the Yonsei Club of Commerce and Economics of Yonsei University in the 1960s)

	1960.3	1961.2	1962.7	1963.6	1964.5
회장	徐在明(경3)	景周鉉(경3)	金興敏(영4)	박기웅(상4)	金秉典(상4)
부회장	朴炳柱(경3)	許東寧(경3)	김승호(상4)	박정욱(상4)	李祥杓(상4)
	李泰植(상3)	李俊演(영3)	조동철(경4)	구재고(상4)	金世煥(상4)
총무부장	吳壽賢(경3)	吳世鎬(상2)	노용악(영4)	윤승구(경4)	宋仁燦(영4)
차장	李應浩(상2)	鄭鉉台(상2)	박승일(상3)	김병전(상3)	
재정부장	金榮基(경3)	洪貞基(경3)	이형근(상4)	김경환(경4)	
차장	桂昌浩(상2)	金 中(영2)	조수택(경3)	오중욱(경3)	
섭외부장	俞元培(경3)	申相式(경3)	강준석(상4)	변성엽(상4)	金龍雲(영4)
차장	金聖鎭(상2)	陸東洙(상2)	변성엽(상3)	김광녕(경2)	
경제학연구부장	吳鍾錫(경2)	張永泰(경3)	김종만(경4)	최창식(경4)	金光寧(경4)
차장	景周鉉(경2)	愼鏞滿(경2)	윤승구(경3)	송박순(경3)	
상학연구부장	金成坤(상3)	文宗煥(상3)	한석우(상4)	이 풍(상4)	辛英夏(상4)
차장	李仁鎬(상2)	韓哲愚(상2)	박성욱(상3)	김안호(상3)	
경영학연구부장	李春雨(상3)	金容鉉(영3)	백준찬(영4)	이충량(영4)	洪承文(영4)
차장	李重赫(영2)	李濟和(영2)	지성윤(영3)	김명정(영3)	
산업경제학연구부장	池聖鎭(경3)	韓基榮(상3)	서정열(상4)		
차장	權會文(경2)	邊榮一(상2)	이남용(영3)		
출판부장	趙孝植(경3)	權會文(경3)	박세용(영4)	이국조(경4)	咸基台(상4)
차장	吳世鎬(상2)	邊康元(경2)	최근식(상3)	김창우(영3)	
도서부장		徐廷宇(경3)	노영순(영4)	이정일(경4)	
차장		金康植(상2)	김혜경(영3)	한정근(영3)	
기획부장			안승덕(영4)	이남용(경4)	崔喜正(영4)
차장			박기웅(상3)	노성호(영3)	
자치부장				김흥기(경4)	
차장				이 용(영3)	
체육부장				이용우(경4)	李俊玉(영4)
차장				이준욱(경3)	
공보부장					崔大奎(영4)
여학생부장				김희영(경4)	李明實(영4)
차장				김유진(영3)	
평의회회장	俞元培(경3)	李英哲(경3)	배동준(경4)		
평의회부회장	李英哲(경2)	襄東俊(경2)	오민언(상3)		

자료: 『經濟學叢』 각 호. 임원 명단은 한자로 기록된 것은 한자로, 한글로 기록된 것은 한글로 작성하였다.

Source: Prepared based on the issues of THE ECONOMIC REVIEW. The names of the executive team members were presented in Chinese characters if they were originally recorded in Chinese characters or in the Korean Alphabet if in the Korean Alphabet.

- (1), 재정부장 진중환(상2), 양장모(1), 섭외부장 이경복(상2), 차장 이용상(1), 출판부장 이종철(상2), 차장 안기영(1), 상학연구부장 배순대(상2), 차장 김성집(1), 경제학연구부장 정운표(경2), 차장 유재찬(1)이었다.
- 86) 1956년 11월 15일 회장 채권병의 유고로 부회장 황규복이 평의회 의 인준을 받아 회장직을 승계하였다.

〈부록 4〉 1954~1965년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목록(The list of master's theses at the Department of Economics in 1954~1965)

졸업일시	논문제목	이름	지도교수
1954. 3.20	經濟循環過程에 미치는 財政의 作用 經營計算論의 體系的 研究	吳潤福 李氣乙	
1955.3. 19	信用創造 理論 및 信用政策의 研究 韓國豫算 七年의 財政政策의 分析 東洋의 古代社會와 奴隸制度	任翊淳 李宗夏 鄭鍾鎮	
1956. 3.17	古典學派에 있어서의 恐慌理論에 對하여	崔昌永	
1957. 3. 2	韓國 國民所得分析和 그 推計方法에 관한 研究 後進國工業化過程에 있어서의 資本形成과 政府의 役割	安商國 全石斗	
1958. 3. 3	韓國貿易의 動態의 考察 : 1910年~1956年 Adam Smith의 價値論 關稅政策論小考 韓國國民所得의 分析	鄭光福 朴光用 이문중 尹起重	김준보 김척도 김상겸 김준보
1958. 9.28	손익분기점에 관한 연구	崔炳鎭	김상겸
1960. 3. 2	Sir William Petty의 價値論 考察 韓國 農業協同組合의 現實分析 후진국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의 구조분석	李淳言 나민수 오창준	최호진 김준보 이정환
1961. 2.28	構造論的 動態 經濟理論의 考察 : F.A.Hayk의 理論을 中心으로 집단안전 보장체제가 후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中間層 增大를 爲한 序說論的 考察	鄭翊周 한당옥 장찬섭	이정환 최호진
1961.12.27	後進國(韓國) 經濟開發計劃과 重點의 投資方向 : 特히 韓國 經濟開發計劃의 始初段階에 즈음하여	金重鉉	이정환
1963. 3.25	韓國經濟成長과 農業生産力에 關해서 交易條件의 長期趨勢分析 : 1870-1950 後進國(韓國)의 立場에서의 經濟哲學理論考察 後進國經濟開發과 政府의 役割 : 우리나라 經濟開發計劃에 對한 考察을 中心으로 農産物 價格安定을 爲한 流通構造改善 : 韓國米價를 中心으로 中小企業成長과 金融問題分析 : 韓國 中小企業의 借入能力과 危險性을 中心으로 中共 第一次五個年計劃의 分析和 批判 經濟開發과 財政投資 農村開發案에 關한 研究	李盛道 吳壽賢 吳鍾錫 柳京子 趙樂教 申龍鶴 方燦榮 閔泰亨 金東奎	최호진 오일홍 최호진 최호진 박기혁 오일홍 최호진 최호진
1964. 2.20	資本市場과 經濟發展 : 韓國珠式市場의 現實分析和 育成을 爲한 政策研究 韓國의 所得分布	申建熙 蔡汶春	최호진 최호진
1964. 9.30	資金決定理論研究 : 限界生産力說을 中心으로 하여 韓國 勞動 生命表作成을 爲한 첫段階로서의 韓國 簡易 生命表 作成 試案	尹錫範 金日炫	최호진 최호진
1965. 2.22	韓國 農業構造改善에 關한 研究 : 經濟發展과 關聯하여 韓國 經濟의 開發을 爲한 模型 韓國 失業問題와 國土 建設事業 利率理論과 金利政策	金碩熙 桂明善 金湄峯 金知煜	박기혁 최호진 최호진 오일홍
1965.10.15	經濟成長과 技術要因에 關한 一研究 : 經濟成長의 誘發要因으로서의 教育 및 研究開發에 對하여	辛容輝	최호진

자료: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소장되어 있는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Source: Master's theses from the Department of Economics of the Yonsei University kept in the Yonsei University Library.

The Trends of the Circle of Economics in Korea and Economics Education in th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of Yonsei University during the 20 Years after the Liberation (1945 ~ 1965)

Jin-A Chung*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trends of the circle of economics in Korea during the 20 years after the Liberation, focusing on Economics education in th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of Yonsei University. After the Liberation, the Division of Commerce of Yonhee School was settled into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nd Department of Commercial Science under th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in 1950.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which was a collision between the two systems, many economists left the university as they went or were kidnapped to North Korea or for ideological reasons. Th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of Yonsei University filled the gap by inviting competent people among its alumni, and the students compensated the loss of class through research activities and seminars led by the Commerce and Economics Research Club Y.S.U. Th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of Yonsei University established its self identify clearly through the

* HK Professor, The Institute of Humanities for Unification, Konkuk University, e-mail: jina@konkuk.ac.kr

reorganization of the college in the late 1950s. As the Washington University Project was promoted in the late 1950s, th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of Yonsei University was finally settled to have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at tried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by accepting new trends such as American business administration theories, case study oriented curriculums, and discussion based teaching methods. And the Department of Economics that pursued “Korean style economics” from a subjective position by analyzing economic issues in Korea positively and critically and suggesting alternatives.

KRF Classification : B030106

Key Words : Yonsei University, The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Economics Education, The Commerce and Economics Research Club Y.S.U, Washington University Project